

제256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미너스 통장’ 이달 3.1만건 급증 10

초등학교 등교수업 확대 검토 19

## 무너진 ‘서울 드림’... 고향 돌아갈 엄두도 못내 “꿈 좇은... 난, 이방인”

### 스페셜 리포트

10~30대 학업·취업 위해 상경  
2019년 수도권 9.4만명 유입  
꿈 이루지도 못하고 불행한  
서울 구직난·비수도권 구인난

상경 6년 차인 김영주(25·여) 씨는 여전히 서울에서 이방인 신세다.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 진학을 계기로 서울에 왔지만, 졸업과 함께 찾아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한파에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김 씨가 본 원룸들은 보증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월세가 50만~60만 원 수준이었다. 비슷한 원룸을 포함해선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면 구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은행에서 70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아 전세 원룸을 구했다. 이마저도 상당수 원룸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불법증축 건축물인 탓에 몇 날 며칠 발품을 팔아야 했다. ▶관련기사 3면

최종 목표는 대기업 내지는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당장 포항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다. 그는 “지방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며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서울에서 경력을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으로 내려간다면 그건 아이를 낳은 이후의 계획이다. 그는 “서울에 계속 머문다면 큰 집으로 이사하거나 차를 구매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지방이라면 그나마 집값도 싸고, 교통 혼잡이나 주차난도 덜하지 않겠느냐”고 덧붙혔다.

꿈을 좇아 동지를 옮긴 건 김 씨만의 사례가 아니다. 해마다 10~30대가 학업과 취

업 위해 상경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비수도권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10~30대는 9만4200명이다. 이 중 7만5593명(80.2%)은 20대다. 여성이 53.6%로 다소 많다. 그나마 10~20대는 추세적으로 수도권에 순유입되고 있지만, 30대는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런 ‘서울 드림’의 결과는 수도권 과밀화와 청년실업, 비혼·만혼 등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당사자인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에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노동력 감소와 미래 출생아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소멸을 기다리는 처지다. 경남 창원시와 충남 천안시, 강원 화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많게는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청년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일자리, 편·오락시설, 생활·교육인프라 등의 경쟁력이 수도권에 밀려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족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수도권도 인구 유입이 반갑지만은 않다. 20대 순유입분의 대부분은 1인 가구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증가는 실업난, 구직급여 등 복지지출 증가, 집값 상승과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층의 수도권 유입은 일자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자원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고소득 일자리와 문화시설, 사회활동 기회, 심지어 결혼 상대를 만날 기회까지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노동시장 측면에서 서울은 구직난에, 지방은 구인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젊은 사람이 넘치는 쪽이든, 모자란 쪽이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백준상 기자@joooon



“설 연휴 성묘 못합니다” 부산시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 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영락공원, 추모공원 공설묘지 및 보안시설을 임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대신 3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설 연휴와 평일을 제외한 주말 6일간 봉안당 추모객 총량사전에예약제를 시행한다. 이날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서 성묘객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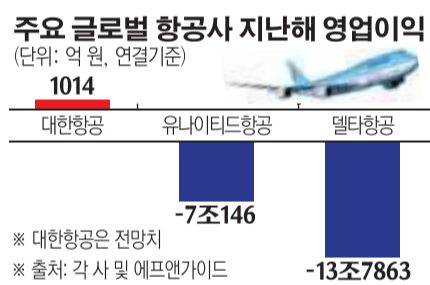
## ‘반토막’ 난 하늘길... 대한항공만 웃었다

글로벌 항공사 적자 속 ‘나홀로 흑자’  
‘여객 → 화물’ 퍼버팅 전략 활용 덕  
공급부족 여파 급등한 운임 영향도 커

대한항공이 지난해 글로벌 항공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하늘길을 오간 항공기가 전년의 절반 이상으로 급감했지만 대한항공이 과감하게 여객운송에서 화물운송으로 퍼버팅(pivoting) 전략을 쓴 덕이다. 퍼버팅은 트렌드나 바이러스 등 급속도로 변하는 외부 환경에 따라 기존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컫는다.

24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추정한 대한항공의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014억 원이다. 별도 기준으로도 흑자(219억 원)를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여행 수요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재빨리 화물 사업에 역량을 모은 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공급 부족 여



파로 급등한 항공 화물운임도 대한항공 실적에 한몫했다. 홍콩에서 발표하는 TAC 항공운임지수에 따르면 작년 12월 홍콩-북미 노선 평균 화물운임은 kg당 7.5달러로, 전년(3.62달러) 동기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반면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은 최근 적자로 얼룩진 작년 실적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63억5900만 달러(약 7조146억 원)를 기록했다. 순손실 규모는 70억7000만 달러(7조7989억 원)에 달한다. 미국의 또 다른 대형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지난해 125억 달러(13조7863억 원)의 적자를 거뒀다. 순손실액은 124억 달러

(13조6760억 원)이다.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글로벌 항공사들도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항공사들의 부진은 예상된 일이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기를 제대로 띄우지 못했다.

글로벌 항공데이터 분석 업체인 시리움에 따르면 지난해 여객 교통량은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시리움은 “작년 글로벌 항공 교통량은 21년 전인 199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 교통량은 전년보다 50.0% 감소한 42만1000대로 집계됐다. 국제선 항공 교통량은 20만 대로 전년보다 66.4% 급감했다. 국내선은 전년보다 10.4% 감소한 22만1000대를 기록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운송을 비롯해 화물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작업도 서두른다. 대한항공 인수위원회는 직원 인터뷰와 서면 조사 내용을 점검해 3월 17일까지 현장 실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상생기금 조성 가닥 ‘이익공유제’

與, 민간 세액공제·정부기금 활용

더불어민주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이익공유제 실현 방안이 ‘상생기금 조성’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익공유제 자발적 기부와 상생협력기금 혹은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법 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사회연대기금은 TF 내 이용우 의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과 함께 검토한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선례로 언급하면서 힘이 실렸고, 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것이다. 당의 구상은 우선 정부가 재원을 일부 출연하고 이후 민간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같은 구조다.

처음 보는 재원은 여유 기금과 공적자금 등이 활용된다. 정부 부처 관리 67개 기금에 있는 2019년 결산 기준 약 219조 원 중 일부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 지원을 위해 쓰인 공적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52조 원이 포함된다.

민간 기부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엔 최대 20%까지 높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TF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비율을 2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의 세제 혜택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다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경우 매년 1000억 원이라는 목표에도 못 미치고, 지금도 기부금의 대부분을 공기업에 기대고 있어 상생기금이 충분한 실효성과 영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윤호 기자 uknow@

## ‘3기 신도시’ 올 3만 가구 공급

2기보다 4년9개월 앞당겨... 토지보상 단축·교통대책 마련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제와 조기 토지보상, 교통대책 수립을 통해 2기 신도시보다 4~5년 빠르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 추진현황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분양약보다 최대 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 시행을 통해 공급 시기를 4년 9개월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주택공급까지 평균 81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3기 신도시의 최초 분양자인 남양주 왕송신도시와 하남교산 신도

시는 25개월, 인천계양 신도시 21개월 등 평균 24개월 만에 마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인천 계양, 9~10월 남양주 왕송2, 11~12월 남양주 왕송,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만 가구가 올해 사전청약 일정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3만 2000가구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단계별로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도 적용된다. 패스트 트랙 적용으로 3기 신도시의 보상 착수기간은 평균 17개월이 소요될 예

정이다. 이는 기존 2기 신도시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된 것이다. 현재 주요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송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구계획을 마련해 협의 중이다. 지구계획은 상반기 안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빠른 공급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조기 확정했다. 관계 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기존 신도시와 비교해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확정된 것이다. 지구지정부터 교통대책 확정까지 성남판교 신도시는 25개월, 김포하강신도시는 28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됐지만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의 경우 7개월, 남양주왕송·고양창릉은 15개월 등 평균 11개월 만에 끝났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충전 스크린 터치하자... 18분 만에 배터리 80% 채워

## 리포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가보니

“늘 지나다니던 길에 주유소가 없어지더니, 이 건물이 들어섰네요. 우선 굉장히 깔끔해서 좋고요. 대기업 두 곳이 모여 만들어서 그런지 전체 시스템도 잘돼 있어요.”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고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양모(42) 씨는 23일 아들과 함께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을 찾았다. 올해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구입을 염두에 뒀다는 그는 이곳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차 시승 체험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양 씨는 “18분이면 배터리를 80% 충전할 수 있다니 이제 전기차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소로 탈바꿈 = 주유소였던 예전 땅이 전기차 충전과 주방가전 체험이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현대자동차와 SK네트웍스는 서울 강동구 길동의 과거 SK주유소 터에 전기차 충전소 및 복합 문화공간인 '길동 채움'을 건립, 21일 문을 열었다. 전체 면적 4300㎡(약 1300평)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선 채움은 '사람과 자동차 모두 채워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1층에는 전기차 전용 초고속 충전소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이 들어섰다는 게 눈길을 끈다. 이곳에는 현대차가 개발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설비 '하이차저'도 8기를 설치했다.

우체통처럼 우두커니 서 있던 여느 충전 스탠드와 달리 지정된 자리에 차를 세우면 위에 달린 동그란 구조물에서 충전 케이블이 천천히 내려온다. 물론 조작은 운전자가 충전 스탠드에 달린 터치 스크린을 통해 직접 해야 한다.

'하이차저'는 출력량 기준 국내 최고 수준의 350kW급 고효율·고효율 충전 기술을 담고 있다.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라면 18분 이내에 10%에서 80%까지

지하 2층·지상 4층 4300㎡ 규모 SK네트웍스와 복합문화공간 조성

1층에 '800V 하이 차저' 8기 설치 넥쏘 등 친환경 자동차 시승 가능

SK매직, 고객 체험형 브랜드숍 쿠키 클래스·가전 체험 공간도

충전할 수 있다.

아직은 국산 전기차 가운데 800V급 충전시스템을 갖춘 차는 없다. 올 상반기 현대차가 선보일 예정인 아이오닉5가 첫 차다. 이후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한 새 모델들이 차례로 800V급 초고속 충전시스템을 얻을 예정이다.

개방형 초고속 충전소는 이번 현대차 강동 센터가 최초다. 독일 포르쉐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이 현재 유일하게 800V급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포르쉐 서비스센터에만 충전기를 뒀 일반 고객은 접근이 어렵다.



1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국내에서 유일하게 800V급 충전 시스템을 갖춘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다. 2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둔 현대차 아이오닉5처럼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는 10%~80% 충전까지 18분이면 충분하다. 3 3층은 SK매직의 브랜드숍 '잇츠매직'으로 채웠다. 체험관에 들어서면 볼과 물, 비빔을 상징한 영상물이 눈길을 끈다. 이곳은 정수기 체험코너, 쿠키 클래스를 위한 주방 등으로 꾸몄다.



다만, 현대차의 포터 전기차와 봉고3 EV는 충전이 어렵다. 위에서 내려오는 충전 케이블이 짧아 1톤 전기 화물차의 충전 구까지 닿지 않는다.

현대차 관계자는 “초고속 충전소의 출범 초기인 만큼 여기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더 많은 고객이 해당 충전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12곳과 전국 주요 도심 8곳에 총 120기의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페, SK매직 브랜드숍 한곳에 = 1층 충전소 한쪽과 2층은 카페 '테라로사'가 자리잡았다. 테라로사는 강릉을 커피의 메카로 만든 커피 전문점으로 유명하다.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는 서로 필요조건을 지

닌다. 급속 충전 고객의 경우 충전이 끝나면 카페를 떠나는 만큼, 좌석 회전율도 높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단계가 일부 완화된 첫 주말, 카페 1~2층 곳곳에는 손님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커피 향을 피워내고 있었다.

3층에는 SK매직의 고객 체험형 브랜드숍 '잇츠매직(it's magic)'이 들어섰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가장 먼저 영상물과 갖가지 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정식 오픈을 위해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SK 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체험관을 둘러봤다. 한쪽에는 정수기 체험코너, 반대편에는 주방 가전 체험공간과 개별 식사가 가능한 공유 주방을 마련했다. 실제로 SK매직은 이 공간에서 '쿠키 클래스' 영상물 제작,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시승 가능 =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은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불을 밝힌다. 1층 충전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이차저' 애플리케이션(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충전 예약 및 결제 △충전 대기 중 전자책(e-Book) 및 차량 청소용품 무상 이용 △충전 요금 23%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쪽엔 '현대차 드라이빙 체험 센터'를 세우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을 앞세운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시승은 사전 예약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 전화나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현재는 코나 일렉트릭과 수소전기차 넥쏘를 최대 2시간 시승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사옥 최고층 495평 통째로 임직원 '소통라운지' 마련 LG에너지솔루션의 '꿈의 일터 만들기'

글로벌 인재 확보·육성 차원 회의실·초집중 좌석 등 마련  
美법인 교육비 2200만원 지원 임직원에 주력사 존재감 부여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1동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최고층인 63층에 임직원 전용공간 '소통 라운지'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 '소통 라운지'에서 임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본사 최고층을 임직원 전용 공간으로 마련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통상 본사 최고층에는 최고경영자(CEO)와 고위 임원들 사무실이 자리잡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임직원 공간으로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미국 법인 임직원들에게 매년 2만 달러(약 22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국내외 '글로벌 인재' 확보·육성의지와 함께 그룹 주력사라는 존재감을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가 임차한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 1동 가운데 최고층인 63층 전체를 일명 '소통라운지'로 운영한다. 1633㎡(약 495평) 규모에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 60여 곳도 설치했다. 1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회의실 외에도 카페, 무대,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창가에는 스타트업 기업처럼 그

네 소파, 빈백 소파(공주머니처럼 생긴 폭신한 의자), 테이블 등을 배치했다.

무대 공간에는 빔프로젝터와 간이 무대 시설을 마련해 구성원들이 타운홀 미팅과 강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이 무대에서 신입사원들과 소통하는 '사내 온라인 타운홀 행사'를 진행했다.

스마트 워킹 공간은 구성원들이 본인의 업무 필요에 맞춰 근무할 수 있는 △출장자 전용 공간 △협업 공간 △다목적 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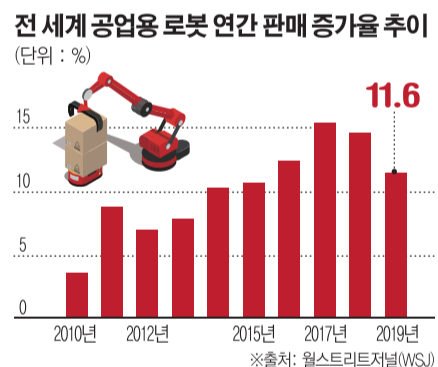
출장자 전용 공간은 해외 출장자들이 본사에 왔을 때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다. '초집중 좌석'은 3면을 칸막이로 차단해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었다. 이른 시간에 과제를 완성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등 집중 근무

가 필요할 경우 쓸 수 있다. 구성원들이 필요하면 자유롭게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자율좌석제로 운영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미시간 법인은 현지 임직원들에게 매년 2만 달러(약 22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회사와 임직원이 서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받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취지다. 미국 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 거점은 GM과의 합작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오하이오 주와 배터리를 양산 중인 미시간 주 등 2곳이다. 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과 소송을 이어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동시에, '글로벌 인재' 확보와 육성을 강조하는 회사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로봇 탄생 100년... 일자리 위협받는 인간

공업용 로봇 수 매년 11% 늘어  
창고 정리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



'로봇'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등장한 지 올해로 100주년이 됐다. 그동안 로봇공학은 빠르게 발전해 상상 속 설정에서 현실이 됐지만, 그만큼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로봇은 체코 작가 카렐 차펙이 쓴 희곡 '로봇의 만능 로봇'에 처음 등장했다. 로봇은 '강제 노역'이란 뜻을 가진 슬라브어 '로보타'를 변형한 단어다. 1921년 1월 25일 초연된 작품은 2년 만에 30개 언어로 번역되며 큰 성공을 거뒀다.

100년 전에는 소설 속 설정에 불과했지만, 인류는 한 세기 만에 SF소설을 현실로 바꿨다. 1961년 제너럴모터스(GM)가 처음으로 자동차 조립공장에 로봇팔을 도입한 이후 공업용 로봇은 제조업에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국제로봇산업연맹(IFR)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공장에 투입된 공업용 로봇은 37만3000대에 달한다. 공업용 로봇 숫자는 2014년 이후 매년 약 11%씩 늘어나 현재 전 세계에서 약 270만 대가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다.

경비와 창고 정리 등 서비스 영역에서 로봇 사용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2019년 단 1년간 전 세계에서 팔린 서비스용 로봇 대수가 17만3000대에 달한다. IFR는 서비스용 로봇 연간 판매 대수가 2023년에는 53만7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물류 산업은 서비스 로봇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창고에서 제품을 찾는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 투입했다. 아마존의 글로벌 주문 처리 센터에서 사용되는 로봇의 수는 10만 대가 넘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로봇 발전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됐다. 텍사스A&M대학의 인공지능(AI) 연구소 책임자인 로빈 머피 박사는 코로나19 대응에 로봇이 사용된 방식을 연구한 결과 326가지 로봇이 29개 분야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중 87%는 기존 로봇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그는 "전염병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발전한 기술은 기업과 조직이 로봇을 선택하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차펙의 희곡 속에서 로봇들은 인간을 위해 노동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킨다. 현실에서 로봇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간 일자리에 대한 위협은 본격화했다. 마크 뮐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로봇과 그로 인한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가속하고 있다"며 "제조업보다 몇 배는 더 큰 서비스 산업에서 자동화가 일어나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장기적으로 자동화는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업과 질 낮은 일자리를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혜림 기자 rog@

<10년간>

# “서울서 취직해야 성공”... 20대 52만명 수도권 몰렸다

## 무너진 '서울 드림' ㉔

- ㉔ 청년 유출 '미래 청년'에도 영향
- ㉔ 청년, 지방 머물 이유 만들어야

경북에서 고등학교, 충북에서 대학교를 나온 안민호(37·남·가명) 씨의 최종 목적지는 경기 안산이었다. 20대 중반 군 제대를 하고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기대만큼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경북으로 내려갔으나, 이번엔 일자리가 문제였다. 이때 안 씨에게 수도권 취업을 추천한 건 다름 아닌 고용센터였다.

그는 “대학 전공과 시험을 준비했던 분야를 활용하고자 인사·노무 쪽과 생산·품질관리 쪽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지역에선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었다”며 “고용센터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산단입지가 밀집한 안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쪽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안 씨는 안산에 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렸다.

일지리는 비수도권 20·30대의 주된 수도권 유입 사유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52만2894명의 20대가 수도권에 순유입됐다. 30대는 2017년까지 순유출이 이어졌으나 2018년 6743명 증가로 전환되고, 2019년엔 9595명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20·30대의 가파른 수도권 순유입에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비수도권

## “고향에선 원하는 일자리 못 찾아”

대기업·공기업 입사 최종 목표 직업·교육 이유로 서울 선호 뚜렷 취업·집 문제에 서울 혼잡 가중

인구를 추월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8만 2741명이 수도권에 순유입됐는데, 이 중 직업과 교육을 사유로 한 순유입은 각각 6만3500명, 2만1184명이었다. 가족, 자연환경 등을 사유로 한 순유출분을 메우고도 넘치는 규모다. 수도권 순유입의 절대다수가 20·30대인 점을 고려하면, 전 연령대의 전입사유는 곧 20·30대의 전입사유로 볼 수 있다.

강원 해안지역에서 나고 자란 박진호(32·남·가명) 씨도 충북에서 대학을 나왔으나, 졸업 후에는 취업 문제로 수도권 대학에 편입했다. 그는 “관찮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싶었는데, 지역엔 일자리가 없고 서울에선 학교 간판과 전공 때문인지 취업이 힘들었다”며 “그나마 편입학한 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에 성공해 서울 근교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직장을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재취업도 이곳에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싸(인사이드)”를 꿈꾸며 상경한 이도 있다. 충북 출신인 김현우(37·남·가명) 씨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명문고를 나왔는데, 당시 ‘인서울’에 가야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였다”며 “서울에서 대학을 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수도권 순유입 (단위: 명)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2010년	2만6991	2만6710	-459	-5311
2011년	2만1935	2만1416	-3807	-8214
2012년	2만6879	2만4284	-1026	-6795
2013년	2만4003	2만653	-1890	-7209
2014년	2만4696	1만9819	-5085	-9834
2015년	2만3241	1만6316	-6228	-1만596
2016년	3만79	2만1044	-1930	-7499
2017년	2만9575	2만4294	1516	-4860
2018년	3만4205	3만2161	7413	-670
2019년	4만1645	3만3948	8384	1211

※ 출처: 통계청



오니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취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혼 전까지 원룸을 전전했고, 워낙 경쟁이 치열해 종종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문화든, 인프라든 서울에서 누리던 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순유입된 인구는 연령대별로 다른 특성을 띤다. 20대는 2019년 순유입

분(7만5593명)의 62.9%인 4만7556명이 서울에 등지를 틀었지만, 30대는 서울과 인천에서 순유출되고 경기도에만 3만9302명이 순유입됐다.

경기는 대표적인 ‘베드타운(주거도시)’이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와 의왕시, 의정부시는 거주지 기준 고용률이 근무지 기준 고용률

보다 각각 21.3%포인트(P), 18.5%P, 17.2%P 높았다. 거주지 기준 고용률이 높다는 건 해당지역 인구의 상당수가 타 지역 직장으로 통근한다는 의미다. 주된 근무지는 서울이나 산단이 있는 인근도시다. 주거비용만을 고려했을 때, 서울에 등지를 트는 20대보다 직장거리가 멀어지더라도 도심 외곽지역을 선호하는 30대가 현실적인 셈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지방 가는 건 꿈 포기하는 일”

### 월세·식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 “서울살이 힘들지만 버텨야죠”

2년 전부터 서울에 사는 박민선(21·여) 씨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 박 씨는 방학 중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무른다. 스타디움 대외활동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리를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박 씨는 서울에선 교통비나 식비 등 나가는 돈이 많다고 말한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아직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한다. 박 씨가 취업하고 싶은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서울에 몰려 있어서다. 박 씨는 서울을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했다.

박 씨와 같은 비수도권 출신 청년에게 서울은 꿈만 같은 곳이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어떻게든 서울에 남아 취업하고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지방으로 돌아가는 건 꿈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보는 청년도 있다.

2019년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는 집에 실린 논문 ‘청년층 지역이동과 임금 수준 효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해 직장을 구한 경우 첫 일자리 평균 임금이 212만 원이었다. 비수도권에서 취업한 청년보다 14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다. 하지만 지방 청년들이 서울에서 살기에 212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월세, 식비 등 필수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은 돈으로 저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모(27·여) 씨는 6년 전 대학교 편입을 위해 김해에서 올라왔다. 박 씨는 부산에 사는 지인들과 월세를 비교하다가 지출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보통 부산에서 깔끔한 집을 구할 때 보증금 조정까지 더하면 월 20만~30만 원 수준인데 서울은 60만 원 이상은 써야 했기 때문이다. 관리비와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박 씨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7년 전 대학교 입학을 위해 울산에서 올라온 송모(24) 씨는 공기업 입사를 희망한다. 울산에 돌아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송 씨는 서울에 남았다. 공기업은 필기시험이 서울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많고 사기업 다수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지출하는 비용이 많더라도 서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 출신 청년이 수도권에 취업하면 수도권 출신 청년보다 첫 일자리 평균 임금이 10만 원 많다. 그러나 수도권 출신 청년은 본가가 근처에 있어 월세나 식비 부담이 확연히 줄어든다. 박 씨나 송 씨처럼 지방 출신 청년은 홀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필수 지출이 커지니 모아둔 돈이 부족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도 있다. 강지수(23) 씨는 4년 전 대전에서 올라와 서울살이를 이어갔다. 강 씨는 서울 중심지에서 결혼이나 육아를 한다면 거주지와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씨는 결혼한다고 해도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8년 전 올라온 백모(27·여) 씨도 지금 같은 상황에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감당하기 힘든 월세, 식비 등 지출이 커서 모아둔 여유티 없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들은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생활이나 거주에 필요한 대책이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건강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 결국 ‘자발적 기부’로 충당... 기업 동참 여부가 관건

## 실효성 의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를 통한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의 ‘기부 실행’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서도 실패했던 전례가 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상생협력기금 또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 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일부 재원을 출연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출연금 기금 여유자금과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여유자금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219조 원에 달하나, 기금별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제한적이다.

## 상생협력기금 설치 법 제정 준비 재정에 민간기부 합쳐 재원 마련 초과이익 기업 적어 동참 미지수

그나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업계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168조7000억 원 중 약 52조 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금융거래 증가로 큰 이익을 본 만큼,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형태로 공적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다.

다만 민간기업들이 얼마나 기부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운데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를 고소득·고자산층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는 차라했다. 당정은 전체 지급대상의 10~20%가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기부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는 기부대상이 기업이란 점에서

과거와 다르지만, 기존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기부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7년 5.2%, 2018년 5.9%에서 2019년 1.7%로 급격히 둔화했다. 부동산업의 생산지수 증가율도 2017년 1.2%에서 이듬해 0.2%로 급락하고, 2019년에도 0.4%에 머물렀다. 따라서 올해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업의 업황 개선은 초과 이익보다 기존 손실 보전에 가깝다. 그나마 순수하게 이익이 늘어난 업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업계 정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제적으로 돈을 걷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부분은 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차적으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건 재정의 책임이고, 그럼에도 재난 상황에서 일부 산업이 이익을 본 건 사실이기에 재원을 조달해 피해 계층을 지원한다기보다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회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

## “이익 본 것 없는데 공유하라니...”

**플랫폼 업계도 ‘한숨’**  
“거래 늘었지만 실적 제자리”  
與 간담회, 기업 불참에 무산

테크 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계층을 자발적으로 돕는 상생 협력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익공유제 대상에 플랫폼업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강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업계에선 못 믿겠다는 분위기가.

민주당은 22일 ‘플랫폼 기업 이익공유제 회상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 협단체들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부담감을 나타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상생 사례를 간략히 조사했는데 굉장히 많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익이 나는 스타트업은 거의 없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이런 노력을 뒷받침해줄 방안을 마련해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원 핀테크협회 사무처장 역시 “핀

테크 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피해를 본 계층을 자발적으로 돕는 상생 협력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개의 플랫폼 기업과 만나는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기업들이 불참의 뜻을 나타내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을 우려한 처사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거래량만 늘었을 뿐 이익이 아직은 없는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업계가 지금까지 투자해왔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된 것인데 투자 과정에서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결과만을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칭찬 없이 ‘돈 벌었으니 공유하라’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어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이미 대출 연장 등 지원... 상생기금 추가 출연은 과도해”

### “은행도 곳간 열어라” 압박

여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면서 은행 등 금융권에도 힘을 보태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데다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것이 알려지면서 곳간을 열어 상생기금으로 쓰자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도 힘을 보태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민금융 기금에 새로운 출연자로 참여해 1100억 원 이상 내용을 것이 유력시된다. 은행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부담을 금융사가 과도하게 떠안게 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수차례 연장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자 상환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기금까지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경영 전반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가 재정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민간기업을 통한 출연을 유도하고 있다”며 “은행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가치의 훼손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익공유제에 대한 시중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200%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이 상생 차원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다. 은행 성과급은 기본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80~200%로 전년도와 비슷하다. 코로나19로 수익이 크게 줄어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 역설’의 대표적 사례다.

김범근 기자 nova@

시니어 품격을 위한 인생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시니어잡지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21. 01. Vol. 173

**COVERSTORY 2021 뉴 시니어 라이프**

PART1. 2021년 시니어가 알아야 할 트렌드 10  
PART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역력 혁신' 만들기  
PART3. PISA로 노후 대비하기  
PART4. 뉴노멀 시니어 랜선으로 리부트  
PART5. 시니어 돌봄의 민낯  
PART6. 여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다

**신라선과 만남 사람들**

한 번의 인생, 모험으로 답하다  
티투어리스트 조명신

책임감 있는 자유 누리는, 계절의 나이를 살다  
가수 겸 청진리 의사 김상호

'낙숫물이 비워져 구멍을 내듯' 청진리의 삶 살아갈 것  
변호사 원영섭

**재미있는 성 인문학 시사잡춘**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따서 유행이다. 그런데 성만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남'이라 표기하는데 어찌 이렇게 적합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랄기까지 하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성을 재미있게 풀어본다.

**리액, 그때는 그랬지 “급하면 전화로 원고를 불렀다”**

왕년 전성기에 누렸던 최고의 명동담배가 예피소드 시간을 뒤돌려본 그 시절, 우리 때는 이것저것 해봤어, 나도 그랬어, 그랬자리라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추억 속 이야기를 꺼내보는 미담입니다.

**슬기로운 연금생활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도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퇴직금은 10년 전체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50+ 워라벨 90년대생과 슬기롭게 일하는 방법**

**아무튼 약 약사가 알려주는 약국 사용설명서**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月 최대 24兆 필요... 대규모 추경·예산 재조정 불가피

## 재정당국, 재원 마련 ‘골머리’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치권에선 한 달 보상 기준을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4조원까지 담은 법안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아 재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올해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 ‘증세’ 필요성도 주장하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를 선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여당에서 화두를 던진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이어서 정말 짙어 볼 내용이 많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와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손실보상 기준과 그에 따른 규모를 정하는 것부터 복잡할 것 같다”며 “재원 조달 방식은 보상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과 상황 대처를 위한 유연성 등을 고려하면, 액수 등 보상 규모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보상 근거 조항만 마련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세부 방안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국회재정연구회 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법에 국가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나머지는 정부에 위임하는 게 좋을 것”이라

## 정치권, 손실 보상안 ‘우후죽순’

수십조 달하는 적자국채 발행해야 국가채무발 신용등급 하향 우려

## 고소득층·대기업 대상 증세 논의 내년 대선 약재될라 가능성 낮아

“손실을 보상할 재원의 종류와 보상 대상, 보상 내용 등을 법으로 규정하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손실 보상 액수에 대해서는 현재 한 달 기준 1조원에서 24조원까지 다수의 방안이 제시됐다.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 안은 손실의 최대 70%까지 보상해 월 24조7000억원,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된 4개월 기준으로는 총 98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 안도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에 월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단순 계산해 6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만 줘도 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에 올해 예산의 일부 재조정 등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행했던 지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예산을 끌어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재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수십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이미 지난해 104조 원에 달했고 올해도 93조5000억 원이 예정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43.9%를 기록했고 올해 전망은 47.3%다. 정부는 내년

**민주당, 자영업자 코로나19 보상 계류법안**

<b>강훈식 의원안</b>	<b>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b> 영업시간 제한 조치 후 손실액 최저임금 수준서 지원(월 1조2000억 원 추산)
<b>이동주 의원안</b>	<b>소상공인 구제 특별법:</b>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의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 신설
<b>민병덕 의원안</b>	<b>손실보상 특별법:</b> 전년도 매출액과의 차액을 50~70% 지원(월 24조7000억 원, 4개월 기준 98조8000억 원 추산)
<b>이종배 의원안</b>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해 의료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손실 보상
<b>장혜영 의원안</b>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을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 시설로 해 범위를 넓히고, 보상액에 임대료 등 고정비 포함

적자국채 발행 100조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50% 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손실보상으로 더 악화할 전망이다.

‘증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 증세를 통한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달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 김원장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감아먹을 수 있는 증세를 여당이 선택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다. 재정당국이 추가 재정 지출에 신중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지난해

100여 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국가부채와 국가 총부채(가계, 기업, 국가 부채의 합)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한국의 국가채무와 민간부채 상황 악화에 대해 몇 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국제신용도가 낮아지면 외환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특히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그 파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법제화 땀 재정 부담 ‘눈덩이’ 주요 선진국 ‘일회성 보상’ 대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제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유럽에서도 시설 폐쇄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해외의 대응 방식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일회성 재정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독일은 1~2차 극복지원금에 이은 3차 극복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매출액이 급감한 중소기업 등에 최대 20만 유로(약 2억 6000만 원)를 지원하고, 올해 상반기 영업 폐쇄 기업에 월 최대 50만 유로(약 6억 700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독일 정부는 앞선 2차 극복지원금을 통해 매출액이 70% 이상 하락한 업체에 고정비의 90% (월 최대 6700여 만 원)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연대기금 지원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연대기금의 수혜업종을 제한하되 대상 기업에는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식당·카페 등 영업정지 업종과 호텔 등 피해기업에 고정비용의 70%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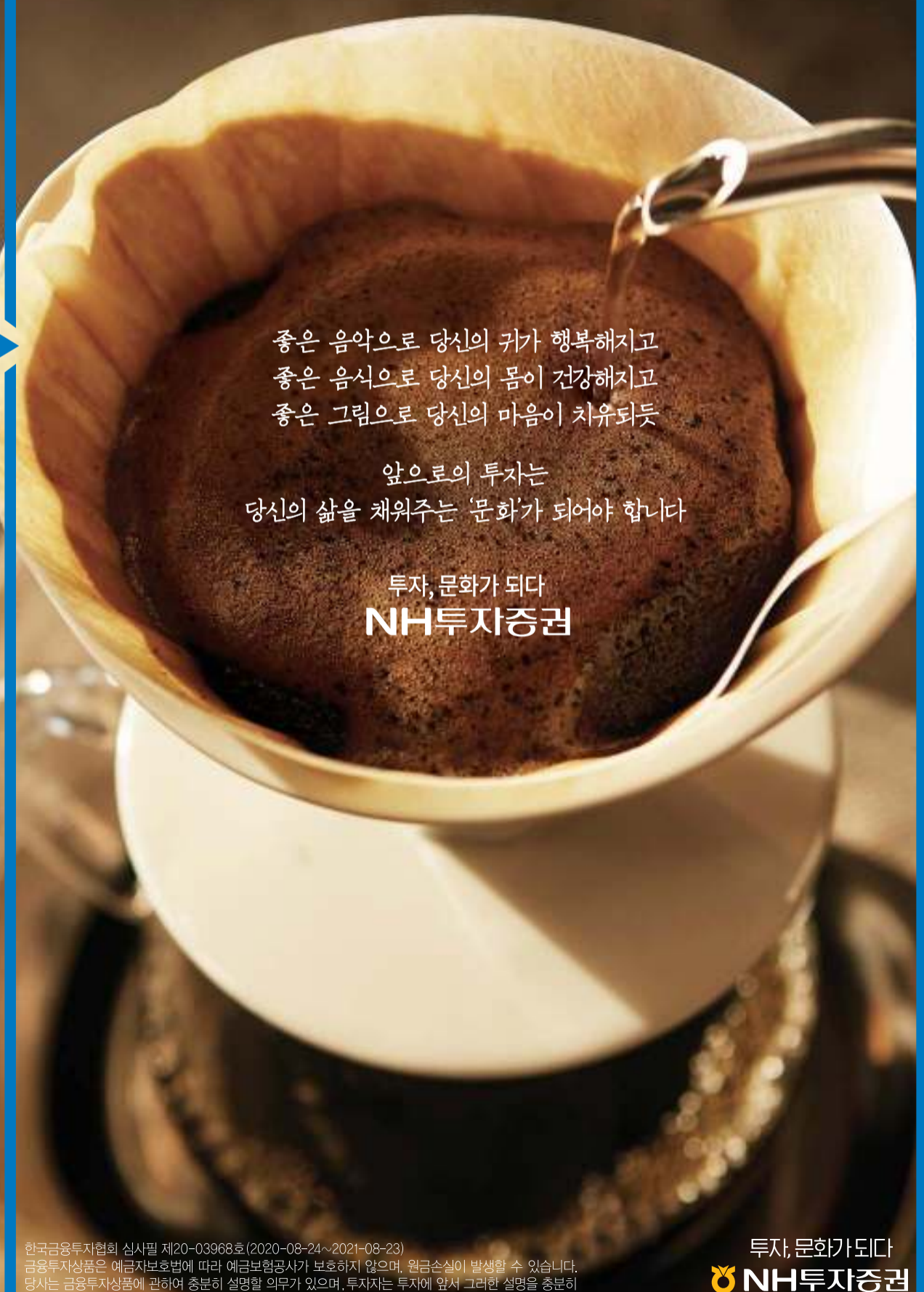
영국 정부는 연말·연초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9000파운드(약 1300만 원)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비용은 46억 파운드(약 6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은 7일 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이어 수도권 내 피해를 본 업종에 하루 6만 엔(약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월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180만 엔, 약 1800만 원 수준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만 봤을 때 해외 국가들은 우리보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우호적인 조건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13.7%의 2배에 육박한다.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이 6.3%, 캐나다 8.3%, 독일 9.9%, 일본 10.3%, 프랑스 11.7%, 영국 15.1, 이탈리아가 22.9%다.

주요 선진국이 우리보다 지원해야 할 자영업자가 적음에도 손실보상을 제도화하지 않는 건 제도 자체가 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자영업자는 많고, 재정은 부족하다. 지난해 G7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예상치(국제통화기금 기준) 평균은 5조4480억 달러로 한국(1조5867억 달러)보다 3배 이상 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좋은 음악으로 당신의 귀가 행복해지고  
좋은 음식으로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그림으로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듯

앞으로의 투자는  
당신의 삶을 채워주는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968호(2020-08-24~2021-08-23)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 손실보상·공매도... 사사건건 갈등 빛는 與·경제부처

### '자영업자 손실보상' 놓고 정세균 총리-기재부 충돌 이낙연·이재명도 기재부 비판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보류

여당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휘둘리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과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부처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의 경우 민주당은 제

안한 뒤 며칠 되지 않아 2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최저임금 기준 보상을 해주는 안인데, 향후 자영업자 손실까지 보상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려면 적어도 100조 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법제화한 나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기재부의 나라냐"고 압박하며 일축했다. 지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대주주 기준 이슈 때처럼 견제에 나선 상태다. 이에 여권 대권 주자인 정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적으로 기재부 비판에 나섰다. 기재부가 일말의 우려를 표하고는 있지만 여권의 추진력에 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재난 구호라는 사회적 프레임을 만들고 기재부를 몰아붙이니 제대로 말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애초 3월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도 뜨거운 감자다. 여당 의원 대다수는 물론 정 총리까지 나서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가장 앞장서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권사 연대책임을 묻는 법안을 제시하며 제도개선 전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무기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계획대로 3월까지만 금지한다는 입장에서 2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내달 설 연휴 전에 당정협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3개월 연장

후 일부 재개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권이 경제부처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선거가 있다. 자영업자와 개인투자자라는 다수가 관련된 이슈라 표계산을 하는 것이다. 당장 4월 재보궐 선거도 있지만, 내년 대선이 크다. 이 때문에 여권 대권주자인 정 총리와 이 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이 해당 이슈들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 총리의 경우 내각을 원만히 운영하는 입장임에도 강한 발언을 내는 건 대권가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윤호 기자 uknow@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방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4일 서울 마포구 홍대문화거리리를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방문했다.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구로구의 한 노후아파트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고위공직자 임대업 금지”

### 이재명 새 어젠다 제시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여권 대권 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또 다른 어젠다를 내놴다. 고위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알려지며 흥역을 치른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물론 정부도 고위공직자에 거주 주택 외 처분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완전히 막자는 주장을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민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한 여론조사를 게재하며 "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선택해야지 사업가가 공직자를 겸해서도, 공직자가 사업을 겸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경기도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답은 26%, 모른다거나 무응답인 경우는 5%에 그쳤다. 보유 주택 수별로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71%, 다주택자는 57%가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에 찬동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권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이해되나"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공직에 임용되거나 승진시킬 때 필수 용의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매각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은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해 다른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도 향후 유사한 주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이 지사가 여론조사와 함께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내 이슈선점에서는 밀릴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uknow@

## 與 '선의 경쟁' vs 野 '과열 양상' ... 사뭇 다른 재보선 분위기

### 박영선·우상호 함께 시장 돌아 14명 뛰어든 국민의힘 비방전 안철수, 경선 두고 '줄다리기'

4월7일 재·보궐 선거 윤곽이 드러나며 여야 후보들의 행보에서도 온도차가 서서히 보이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격 합류하며 우상호 의원과 양강체제를 형성한 여권에서는 '선의의 경쟁'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후보들이 난립한 야권의 경우 '상호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주자들인 박 전 장관과 우 의원은 23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첫 대면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정책 공약, 경쟁력 등을 내세우면서도 반가움, 친밀감을 표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우 의원은 박 전 장관이 도착하자 "오래 기다렸다. 누님 올 때까지 지키고 있었다"고 반갑게 맞았으며, 박 전 장관은 "그동안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동생이 고생했다"고 답하며 친밀감을 표했다.

반면, 무려 10여 명이 넘는 후보들로 넘쳐나는 야권의 경우 그만큼 과열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초반부터 신경전을 이어갔다. 오 전 시장이 출마 선언 당일 "아마 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본인 시장 경합을 어필한 것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제가 10년을 쉬신 분보다 그 역할을 잘할 자신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시장에 뛰어든 당내 인사는 총 14명, 부산시장은 9명으로 20명 이상 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상호 비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당 공천관리위원회

가 "후보 간 흑색선전을 삼가달라"며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후보는 후보자격 박탈 등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두 사람은 사실상 서로 힘을 합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안 대표는 결국 김 위원장의 입당 제안을 거부하며 '오른 경선' 카드를 내놓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일평균 확진자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입

### 백신 접종계획 28일 발표... 지난주 일 평균 384명

최근 1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선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내달 예정된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그간의 거리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한 주(17-23일) 일평균 국내발생 환자 수는 384.0명으로 그 전주(10-16)의 516.1명에 비해 132.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평균 60세 이상 확진자 수도 109.9명으로 전주 149.4명에 비해 39.5명 줄었다. 이는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충족하는 수치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단계 하향도

가능하다. 다만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산발적인 확산이 늘면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도 증가세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25.1%로 전주(21.9%)보다 3.2%포인트(P) 올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람 간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이 높다는 점과 이동량이 늘어나

는 설연휴가 다가오는 부분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초 접종대상은 집단시설 거주 노인(65세 이상),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약 100만 명이다. 최근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분기부터 공급받을 예정이고 현재까지 공급 계획이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 산란계 1013만 마리 살처분 달걀 한판 가격 24.8% 상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산란계 수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산란계는 달걀 생산을 목적으로 기르는 닭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0시까지 살처분한 산란계는 1013만8000마리로 조사됐다. 여기에 육용오리 162만3000마리, 종오리 11만6000마리, 육계 563만1000마리, 종계 93만6000마리, 토종닭 57만8000마리, 기타 175만4000마리를 더하면 살처분한 가금류는 2077만6000마리다. 전날까지 가금농장 69곳과 체험농원 2

곳 등 모두 71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살처분능가는 모두 371개이며 이중 산란계 농장은 134개(36.1%)에 달한다.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의 수와 개체의 마릿수 모두 산란계 농장이 가장 많다.

이처럼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농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면서 22일 특란 10개 산지 가격이 1697원으로 작년 1월 대비

45.8% 급등했다. 달걀 한 판(특란 30개)의 소비자가격은 6610원으로 전년보다 24.8% 상승했다.

정부는 달걀 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신선란과 달걀 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5만(t)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요!

# 우리동네 가게를 소개합니다

<경기도③편>



다양한 한복 구비, 단체복 대여 가능  
**백년해로**  
안산시 단원구 경지서로 234, 신해 프라자 101호 | 031-402-5255



SBS 생활의 달인 족발 최강 달인 달성  
**문영순달인족발보쌈**  
시흥시 비동가동원2길 24, 1층 | 031-316-4848(9)



친환경 발효 제품 사용, 복구뽀 전문점  
**아모르헤어**  
부천시 상동 500-5, 영용상가 106호 | 032-322-3008



21년 전통 감자탕 외길 맛집  
**대청마루**  
부천시 중동로 358 | 032-684-0412



일상의 의미를 찾아가는 공간  
**스페이스작**  
부천시 까치로20번길 137 | 010-3303-6092



다양한 유아&어린이 책이 가득  
**안양어린이서점 노벨북**  
안산시 동안구 동천로6, 스페이스프라자 202호 | 031-444-9400



세계적 건축용 단열필름 SUNGARD  
**(주)퍼스트**  
의왕시 초평로 160-1, 2층 | 1877-0699



매일 새로운 신선한 반찬을 새벽에 배송  
**(주)정식**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40, 2층 | 010-5729-8129



설탕을 줄인 맛있는 수제쿠키  
**라상떼 푸드앤컴퍼니**  
premium & healthy baking  
김포시 태양로 74, 경동메르웨이타워 772호 | 070-8823-3401

# ‘관계회복’ 다지려는 中… ‘反中동맹’ 먼저라는 美

“中, 美 정부와 고위급 회동 추진”  
“동맹국 우선” 백악관 선 그늘 듯

중국 정부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외교 담당 수장을 워싱턴에 급파, 미국 행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급 인사와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권 출범에 맞춰 미국과의 교인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교사령관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을 워싱턴에 보낼 것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시 주석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이첸카이 주미 대사 명의로 미국 측에 서한을 보내 고위급 인사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현재 비공식 채널을 통해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을 뿐, 바이든 외교 안보팀



2013년 12월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에는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양국 관계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얼어붙은 데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 정권에서는 무역 문제가 우선순위를 띄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다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도에 언급된 어떠한 서한도 작성한 바 없다”며 WSJ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건전한 중미 관계는 양국 국민의 기본적인 이익에 봉사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러한 부인에도 중국 정부가 바이든 새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에 나설 의사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은 경제 재건을 위해 미국과의 긴장 해소를 바라고 있다”며 “고위 관료들 역시 안정적인 미·중 관계에 대한 희망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러한 ‘구애’에도 바이든 새 정부가 중국이 내민 손을 덥석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WSJ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조차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동맹국들과 먼저 만나 공동으로 중국에 맞서는 ‘대중국 단일전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효선 기자 hsbyun@

## 日 정부 “올여름 개최 이상無” ‘도쿄올림픽 취소說’ 진화 진땀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급부상하고 있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설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앞으로 6개월이 남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IOC는 도쿄올림픽을 올해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24일 일본 니혼게이지(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은 긴급사태 재발령이라는 고강도 통제 조치에도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에서는 이달 초부터 연일 4000~5000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감염력이 더 강해진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는 정황까지 목격되고 있다. 전날에도 일본 내 46개 도도부현과 공항 검역소에서는 4717명의 신규 확진자와 83명의 사망자가 새롭게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36만2445명, 코로나19로 인한 총사망자 수는 5064명이 됐다.

이에 따라 일본 안팎에서는 애초 내달 7일까지였던 긴급사태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덩달아 도쿄올림픽 회의론도 급부상했다. 급기야 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최근 일본 여당 관계자를 인용, 정부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때문에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도쿄 오다이바 해양 공원의 오후 조형을 앞을 행인들이 걷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즉시 이를 부인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카이 마사부 일본 관광 부장관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은 절대 없다”며 “올여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하나가 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OC도 도쿄올림픽 개최 회의론과 취소설을 잠재우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올림픽 개막 반년을 앞두고 22일 공개한 동영상에서 ‘무관중 개최’를 선택 사항 중 하나로 시사하면서, 올여름 개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감염) 상황에 대한 대처 수단을 적절한 시기에 결정한다. 이것은 몇 명의 관객을 넣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까지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7·8월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것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IOC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HRDK 능력티켓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인적자원개발사업  
모든 제형 사용 가능!

인적자원개발 0789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모든 사업

능력티켓 한장으로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대표 인적자원전문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에 송부

이르면 내달 9일 재판 시작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탄핵안을 상원에 보낸다. 다만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은 2월 둘째 주에나 열릴 예정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상원 연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상원은 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원은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원 민주당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10명이 찬성했다.

하지만 상원에서의 탄핵 재판은 2주 뒤에나 열릴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등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리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회의를 거쳐 2월 둘째 주에 탄핵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 재판이 미뤄진 기간 동안 상원은 바이든 내각 인준과 코로나19 구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서명을 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법안 등 미국 국민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은 법적 서류 작성과 교환 등 탄핵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재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신속하게 탄핵안을 처리하려던 펠로시 의장의 구상은 초반부터 빛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입장을 소명하고, 이르면 9일 탄핵 재판이 시작된다.

공화당에서 정족수를 채울 만큼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 탄핵 재판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민주당 전원 찬성표와 17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최혜림 기자 rog@

# ‘선수 치는’ 시진핑 기후변화 패권경쟁 ‘새판 짜는’ 바이든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가 혼연일체로 나서야 할 판국이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오히려 새로운 패권 전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책이 패권 전쟁 수단으로서 무게감을 더하면서 환경 분야를 무대로 이른바 ‘그린 지정학’이 펼쳐지고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출범하면서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기후변화를 무대로 한 리더십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처음으로 가상으로 열린 유엔총회에서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결의 표명은 곧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주도면밀하게 타이밍을 쏜 것으로 보인다. 닷케이이는 분석했다. 유엔총회 직전에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의 환경 대화가 열렸고 1개월 뒤에는 미국과 EU의 외무장관 회담이, 이후 2주일 뒤에는 미국 대선이 각각 예정돼 있었다. 중국은 환경 분야에서 미국의 대응이 그만큼 늦다는 것을 부각하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다른 나라도 중국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작년 10월 2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뒤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미국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를 공언한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해 가장 먼저 이와 같은 목표를 내건 EU와 함께 주요국이 탈탄소를 향해 일제

## G2전쟁 2R “脫탄소”

‘공공재 딜레마’ 빠졌던 기후대협 세력 확대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 시진핑 “탄소중립 선언” 리더십 과시 바이든 “친환경 정책” 국가연대 속도

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발표 전만 해도 이와 같은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닷케이이는 지적했다. 다른 나라가 행동하면 자국은 가만히 있어도 혜택을 봐서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역학 관계가 기후변화를 둘러싼 협상과 이행을 실제로 방해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닷케이이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노력과 리더십 발휘를

실마리로,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며 “환경 대책이 세력 확대를 위한 패권 경쟁의 도구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올리비아 라자드 연구원은 “중국의 목적은 3가지”라며 “첫째, 기후변화와 전쟁을 기치로 삼아 국제사회에 중국의 리더십을 각인시키는 것이며 둘째로는 환경을 중시하는 EU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세 번째로는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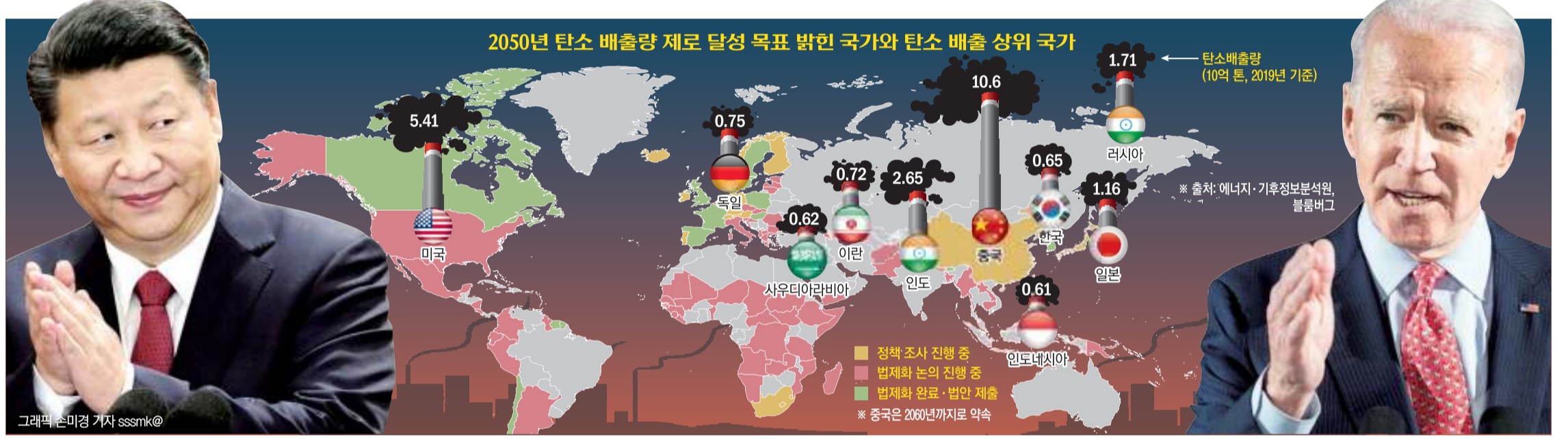
미국도 바이든 시대가 오면서 다시 기후변화 이슈에 주도적 역할을 맡으려 한다. 제임스 베이커와 조지 슐츠 등 전 미국 국무장관들은 최근 외교 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최근 수십 년간 미국 경제가 번영을 계속한 것은 정보혁명의 선두에서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도 IT 혁명에 필적하는

광범위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는 미국 경제와 정치, 안보 등 어느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서 미·중의 경쟁이 격화하는 것은 EU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많은 국가로 구성된 EU는 복잡한 규칙 협상과 중재 외교가 원래 전문 분야여서 미·중 사이의 ‘중재자’와 직접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는 ‘플레이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발언권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스킵 무어 정치학 교수는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가속했지만, 우려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며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각국이 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무역 금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쟁과 혁신이 정체돼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책 비용이 급증, 탈탄소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를 울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G2 ‘脫탄소 정책’ 비교

### 온실가스 주범서 녹색개발 선도 ‘주객전도’ 외친 中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이후 기후변화 문제는 중국이 자국의 리더십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무대를 제공했다. 이런 국면에서 중국은 고대 병법서인 ‘삼십육계’에 나오는 ‘반객위주(反客爲主: 손님과 주인의 입장이 뒤바뀐다)’ 전략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분석했다.

반객위주는 쉽게 말하면 ‘주객전도(主客顛倒)’다. 먼저 경의를 얻고 신뢰를 확보한 뒤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주인을 내쫓고 내부에서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한 틈을 타서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를 무대로 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도 이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례로 중국과 유엔은 지난해 공동으로 ‘일대일로 녹색 발전 연합’을 설립했다.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20여 개 유엔 기관 이외 일대일로 회원국 환경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 조직의 표면적 목적은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 추진이다. 중국은 ‘패권 확대 수단’으로 경계심을 자아내는 일대일로에 대해 유엔의 보증 문서를 얻었으며 동시에 유엔 조직과 일대일로를 통합하는 형태를 구축했다고 닷케이이는 풀이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녹색개발을 선도하는 행국이 된 것이다. 바로 주객전도와 같은 움직임이다.

기후변화 대책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녹색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한 발전, 배터리, 전기자동차 이외에도 생산설비 효율화

### 중국의 기후변화 대책

-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작년 9월 2060년까지 탄소중립 약속
    -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 중국이 처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구체적 약속
    - 목표 달성 위해 2060년까지 환경 기술 등에 총 15조 달러 투입 전망
  - 2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 목표
  - 3 205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퇴출 계획
  - 4 유엔환경계획 등 20여 유엔 기관 등과 작년 ‘일대일로 녹색 발전 연합’ 설립
  - 5 중국,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의 36%, 풍력 33% 각각 차지
  - 6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60% 비중
- 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이르기까지 녹색 기술은 기업과 경제, 무역 장래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 중국은 녹색 기술의 패자로 떠올랐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제품 생산과 수출, 투자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 발전설비 용량으로 본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은 태양광에서 약 36%, 풍력에서 33%를 각각 차지하며 정부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불과 10년 만에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지위를 구축했다.
- 전기자동차 판매 점유율에서도 중국은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한다. 산업 진흥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전기차 산업 육성에 600억 달러(약 66조 원)라는 거액을 투자한 성과다.
- 국가 주도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키워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중국의 전략은 이미 IT 기기 등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는데 환경 관련 시장에서도 같은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닷케이이는 풀이했다. 중국 칭화대학은 “시진핑 주석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중국의 환경 기술 분야에 15조 달러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스킵 무어 정치학 교수는 “새로운 에너지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미국이 아닌 중국 기업이 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국의 기후변화 대책

- 1 조 바이든 대통령 20일 취임식 당일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행정명령 서명
  - 2 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 인가 취소
  - 3 탄소배출 산업 지원 트럼프 전 정권 규제 완화 재검토 약속
  - 4 그린 뉴딜 : 4년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 투입
  - 5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배출 제로 목표
  - 6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제로) 달성
  - 7 기후변화 위협 맞서기 위한 다른 나라와의 협력 강조
  - 8 기후변화, 외교와 안보 전략, 무역정책과 통합해 전개해 나갈 계획 → 다자주의 복귀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탈환을 노리고 있다.
-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시대 미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은 기후변화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 그 리더십을 되찾아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임식 당일인 20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키스톤 송유관 프로젝트 인가를 취소하는 등 환경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도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했다. 바이든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그린 뉴딜’을 내걸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적 기회 창출을 위해 향후 4년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무려 2조 달러(약 2410조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목표도 다시 내세웠다. 기후변화 대응이 자신의 핵심 과제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런 바이든이 기후변화 대책과 환경 보호 부문에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 중국은 트럼프의 파리협약 탈퇴로 기후변화 대응 주도권을 쥐게 됐지만, 약점이 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중국이 탈탄소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에서 석탄 화력발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프로젝트에 거액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며

### ‘그린뉴딜’로 친환경 리더십 탈환 ‘명불허전’ 내 건 美

“이에 탄소 덩핑이라는 말조차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도 중국의 모순된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 세계에 더러운 석탄을 더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어떤 국가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들 스스로 서명한 기후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과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바이든이 앞으로도 중국의 이중 기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환경을 지렛대로 한 패권 확대 움직임을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책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던 미국 기업들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아마존닷컴과 포드자동차 등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기업 약 40개사가 이달 초 미국의 회와 바이든 진영에 서한을 보내 파리 협정으로의 원활한 복귀와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 실행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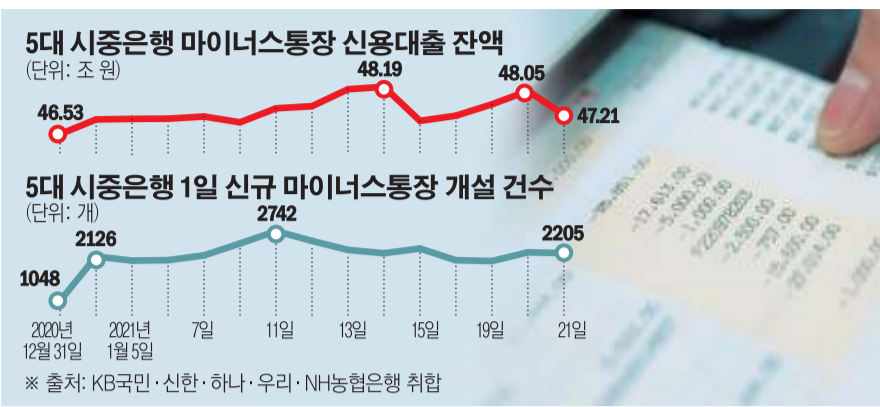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심이 높아지는 주주들의 존재, 바이든이 공약한 거액의 환경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발언권 확보 등이 기업들의 움직임을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닷케이이는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와 파리 협정 등 2개의 핵심 국제 협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얻기는 쉽지 않다”며 “여전히 미국 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월등히 높아서 주도권을 탈환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 신용대출 규제에... 마통 이달만 3.1만건 급증

마통, 분할상환 의무화 대상 제외  
14영업일간 하루 2000건씩 늘어  
전체 신용대출 잔액 1.3兆 증가



이달 들어 5대 주요 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마통)이 3만1000건을 넘었다. 마통 신용대출 잔액은 작년 연말과 비교해 3주만에 6700억 원가량 불어났다. 다만, 전체 금융당국의 고강도 신용대출 조이기 정책 덕에 전체 신용대출 규모는 당국이 제시한 관리 수준(2조 원)을 넘지 않고 있다.

◇하루 2000여 건씩 급증 = 24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14영업일 동안 5대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은 총 3만1305건이 이뤄졌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하루 1000건 수준이었던 신규 마통 개설 건수가 이달에는 하루 2000여건씩으로 급증한 것이다. 그 결과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주

새 6766억 원으로 불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증시 활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몰린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가 추가로 나오기 전에 미리 한도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더해지면서 마통 신규 개설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이후 '마통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통에 대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전체 신용대출 1.3조 증가 = 은행권이

'고액 마통'을 비롯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5대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재 5대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9583억 원으로, 작년 12월말(133조6482억 원)보다 1조3101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치며 당국의 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 전체 신용대출 증가규모를 월 2조원 안팎으로 관리해 왔다. 이달 초 불과 4영업일 만에 신용대출 잔액이 4500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 신용대출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자 당

국인 고액 대출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면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 기조에 맞춰 최근 은행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줄지장인,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마통 신규 신청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4개 상품의 최고 한도를 5000만 원 줄였다. 우리은행은 연말에 중단했던 직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지난 7일 재개하면서 마통 대출 한도는 당초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췄다. 하나은행도 지난 6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대상 5개 신용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22일부터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5000만 원 낮췄고, 케이뱅크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과 마통 대출 기본관리를 올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마통 신규 개설과 잔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도 "신규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어 아직까지는 전체 신용대출 잔액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권광석 우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 카뱅 조언 듣는 권광석 "미래 디지털 금융 주도"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를 초빙했다.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윤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듣고 경쟁사의 우수한 점까지 배우겠다는 권 행장의 혁신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비전홀에서 '202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권 행장은 "올해 경영목표를 '전사적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금융시장 주도'로 정했다"며 "122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위기극복 DNA에 '혁신D·N·A'를 더해 미래 디지털 금융시대를 주도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를 특별 강연자로 초청, '디지털 혁신'에 대한 강연을 들은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경쟁사의 우수한 점까지 배우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권 행장의 혁신의지가 반영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금감원 워싱턴사무소, 사실상 폐쇄 수순

'인력·예산 비효율' 감사원 지적에  
국실장 인사서 사무소장 공석으로  
금감원 "아직 정해진 것 없어"

금융감독원이 올해 인사에서 워싱턴사무소장을 공석으로 뒀다. 해외 네트워크 예산·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감사원 지적에 결국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발표한 국실장 인사에서 흥재필 워싱턴사무소장을 인적자원개발실 소속으로 배치

했지만, 워싱턴사무소장으로서의 인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해외사무소 중 유일하게 소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것이다.

금감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달 팀원 인사 때 사무소장 없이 주재원만 남겨놓을 가능성은 있다.

금감원이 워싱턴사무소 폐쇄 수순에 들어간 건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과의 업무 협조와 금융동향·감독제도 등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지만, 감사원은 비효율적으로 봤다. 금감원 해외사무소의 주요 업무인 정보수집은 국내에서 언론·인터넷

을 이용하거나 해외출장을 통해 충분히 수집 가능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첫 제동은 지난 2017년 감사 때다. 이에 금감원은 2019년 5월 홍콩사무소를 폐쇄하고, 추진 중이던 싱가포르사무소 신설 계획도 백지화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도 금감원의 해외네트워크 축소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워싱턴사무소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 25개가 소재한 뉴욕에 금감원 현지 사무소가 있는데, 해외점포가 한 곳도 없는 워싱턴에 사무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워싱턴 소재 한국대

사관에 기획재정부 출신 재경관이 배치돼 있고, 역시 워싱턴 소재 미국 통화감독청과 세계은행에 2명의 금감원 직원이 파견된 만큼 "기능이 중복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선 잇따라 해외사무소 축소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외사무소는 단순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현지 감독당국과의 교류 협력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홍콩사무소 폐쇄로 2019년 홍콩 시위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졌지만 금감원은 관련 정보를 중국 북경사무소나 언론보도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1조 원이 넘는 채권형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홍콩사무소가 있었다면 판매사들의 현지 지점들과 공동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서지연 기자 sjy@



## 당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PC와 휴대폰에서도  
간단한 접속만으로 재택근무부터 통합 경영관리까지 완벽하게  
더존이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꾸어 사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할인'에 '정부지원'을 더하다! 단 40만원만 부담  
50% 90%

비대면 업무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로 '홈피스 올인원 팩'  
(Home + Office) All in One Pack

- 회계관리, 기업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메일, 전자결재, 웹오피스
- 인사관리, 내PC 원격접속, 웹스토리지, 팩스, 거래처 관리, 명함관리
- 조직도, 문서협업솔루션, 할일관리, 일정관리, 노트, Tedge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2020년, 힘든 시간을 이겨낸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금융의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SK '소재·에너지·바이오·디지털' 4대 사업 투자 올인

**미래 핵심사업 실행 본격화  
1.6조 美 수소 투자 시작으로  
다양한 외부 파트너 적극 유치**

SK(주)가 올해 4대 핵심 사업인 첨단소재·그린(Green)·바이오(Bio)·디지털(Digital) 사업의 실행을 본격화한다.

SK(주)는 수소 사업을 신호탄으로 2021년을 첨단소재·그린·바이오·디지털 등 4대 핵심 사업 실행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SK(주)는 이달 7일 SK E&S와 함께 미국 수소회사인 플러그파워의 지분 9.9%를 1조6000억 원(15억 달러)에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SK(주)는 우선 투자 포트폴리오를 4대 핵

심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기존 '투자 1센터, 2센터, 3센터, I Cube센터' 등의 명칭도 △첨단소재 투자센터 △Green 투자센터 △Bio 투자센터 △Digital 투자센터로 변경했다.

첨단소재 투자센터는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사업을 담당한다. SK(주)는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소재 사업의 성공 기반을 마련했음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동박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향후 급격히 커지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시장 등과 관련해 반도체 소재의 성능은 빠르게 향상되며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첨단소재 투자센터는 시장의 빠른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 신소재 고분자 전공 박사급 전문 인력 영입과

핵심 기술 기업 중심의 투자를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린 투자센터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감 사업모델 등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K그룹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지속가능 대체식품(Alternative Food) 사업과 리사이클링, CO2 포집·활용 영역의 신기술과 혁신적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한편, SK(주)는 수소사업추진단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두고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친환경 수소 생태계 구축을 가속한다는 전략이다. 수소사업추진단은 SK E&S, SK이노베이션 등 관계사 에너지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바이오 투자센터는 신약개발과 원료의약품위탁생산(CMO)을 두 축으로 합성신약에서 바이오신약까지 아우르는 사업 역량 확보를 위해 잔결음을 이어가고 있다. SK바이오팜을 통해 신약개발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SK(주)는 미국 바이오기업로이반트(Roivant)사와 진행 중인 표적 단백질 분해 신약 등 혁신 신약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CMO 통합법인 SK팜테코를 통해 한국과 미국, 유럽 시장을 잇는 삼각편대를 완성한 SK(주)는 인수 추진 중인 프랑스 유전자치료제 CDMO사인 이포스케시

(Yposkesi)사를 시작으로 고성장 바이오 CMO로 영역을 확장해 합성과 바이오를 아우르는 글로벌 톱티어 CMO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투자센터는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글로벌 신기술 트렌드로 떠오르는 이머징테크 시장 공략을 통해 미래 유망영역을 선점할 계획이다.

SK(주)는 4대 핵심 사업 육성 과정에 뜻을 함께하는 다양한 외부 파트너들의 자본, 기술, 투자 역량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투자 전문 플랫폼으로서 SK(주)만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한, 적시 투자 회수를 통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고 실현 수익은 미래 성장 사업에 재투자하는 투자 선순환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현대차·기아, 작년 美 점유율 8년 만에 최고...유럽서도 첫 7%

**글로벌 판매 12% 줄었지만  
친환경차·SUV 신차 선방**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며 현지 점유율을 끌어 올렸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12년(8.7%) 이후 8년 만에 최대치였고, 유럽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7% 점유율을 기록했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부침을 겪는 사이 방역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SUV와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신차 제품군을 확대한 덕이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 대수는 635만 851대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

반면 주요 시장에서 전체 시장 수요감소세보다 선방했다. 그 덕에 점유율은 뚜렷

한 회복세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 판매가 전년 대비 11.8% 줄어든 사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16% 수준 감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곳은 인도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인도에서 전년 대비 1.6% 증가한 56만4147대를 판매해 점유율을 전년 18.8%에서 23.1%로 4.3%포인트 끌어올렸다. 최근 인도 시장에서 소형 SUV '셀토스' 등 SUV 인기가 상승하며 전체 판매 개선을 주도했다.

(8.4%)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는 전년 대비 7.6% 감소한 122만4758대를 판매했지만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이 14.4%나 감소한 덕에 점유율은 급상승했다.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은 8.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8.7%를 기록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최대다. 2020년 현대차·기아 유럽 점유율은 전년(6.7%)보다 0.3%포인트 상승한 7.0%를 기록해 처음으로 7%대에 올라섰다. 다만 지난해 중

국 판매는 66만4744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26.9% 하락해 점유율은도 종전 4.5%에서 3.5%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기아는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수요 회복세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708만2000대(현대차 416만 대·기아 292만2000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작년 판매 실적 대비 11.5% 증가한 수준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2021년형 무풍에어컨 신제품 '무풍갤러리'(왼쪽)와 '비스포크 무풍클래식' 제품. 사진제공 삼성전자

### 삼성 '비스포크 무풍클래식' 에어컨 출시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콘셉트를 적용한 2021년형 무풍클래식을 내달 5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스포크 무풍클래식'은 비스포크 가전에 도입해 인기를 얻었던 5가지 색상을 바랍문 패널에 적용한다. 스카이블루·핑그린·핑크·새틴 그레이·새틴 베이지 등으로, 비스포크 가전끼리 조화로운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바랍문 패널은 소비자 취향과 인테리어에 맞게 다른 색상으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됐다.

이날 삼성전자는 무풍에어컨의 최상위 라인업인 '무풍갤러리' 신제품도 출시했다. 무풍갤러리는 전면부에 'V'자 형태의

격자 무늬가 돋보이는 '쉐브론 메탈 아트패널'을 도입했다. 이 패널은 '쉐브론 다크'와 '쉐브론 라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조해 준다. 또 소비자가 손쉽게 교체해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 하단부 '아트패널'에는 '트러플 브라운'을 추가해 총 10종의 색상이 제공된다.

무풍갤러리의 출고(설치비 포함)는 냉방면적(56.9~81.8㎡)에 따라 307만~654만 원(단품 기준)이며, 비스포크 무풍클래식은 냉방면적(56.9~62.6㎡)에 따라 247만~307만 원(단품 기준)이다.

송영록 기자 syr@

## “인텔 칩 만드는 삼성·TSMC 최소 2~3년 수혜”

**인텔, 자체생산 끈 안 놓아도  
차세대 칩 위탁생산 불가피**

인텔의 '듀얼 밴드' (자체 생산과 외부 파운드리 모두 활용) 전략의 최종 수혜자는 누가 될까. 계약을 맺은 파운드리 업체가 어딘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공정 개발 기간인 최소 2~3년 동안은 대만 TSMC와 삼성 전자 수주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TSMC 등 파운드리 업체들은 인텔과 위탁생산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주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통해 인텔의 사우스브리지로 불리는 PC 메인보드 칩셋 생산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PC 메인보드에서 USB나 오디오

등 컴퓨터의 입·출력 기능을 관장하는 제품이다.

미국 현지 언론에 보도된 GPU(그래픽처리장치) 수주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오스틴 공장의 경우 14나노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인텔 GPU 중에선 해당 공정으로 제조되는 제품이 없다. 업계에서도 인텔이 CPU(중앙처리장치)나 일부 GPU 등 핵심 부품에 대해선 한동안 자체생산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설계와 공정을 모두 갖춘 회사가 의사소통, 기술개발 면에서 유리한 건 맞는다”라며 “경쟁자인 AMD가 먼저 전량 파운드리 생산에 맞춰 설계 체제를 구축해놓은 상태인데, 인텔이 자체생산 기조를 놓아버리면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텔이 자체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동안, 삼성전자와 TSMC는 인텔향 물량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는 비주력품목 수주에 그쳤지만, 향후 CPU·GPU 일부 물량은 첨단 공정 위탁생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텔의 적수 엔비디아와 AMD 등이 7nm(1나노미터=1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된 그래픽칩셋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만 10nm 공정을 고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개발 예상 기간이 최소 3년인데, 이 기간엔 위탁 생산 밖에 수가 없다”라며 “가격협상이나 물량 확보를 위해 삼성과 TSMC 두 곳과 모두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나친 기대감은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 美 출시 앞둔 'LG살균봇' '베스트 오브 CES' 선정

LG전자 비대면 방역로봇 'LG 클로이 살균봇(LG CLOi DisinfectBot)'이 현지시간(미국) 21일 열린 '베스트 오브 CES: 넥스트 빅 씽크(Best of CES: NEXT BIG THING)' 행사에 등장,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 제품은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 예정이다.

행사는 미국 미디어 연구기관 팰리센터(Paley Center for Media)가 주관했다. 팰리센터는 매년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에 출품된 제품 가운데 가장 유망하고



호텔 객실을 살균하는 'LG 클로이 살균봇'.

영향력 있는 제품을 선정, 시연한다. LG전자는 'LG 클로이 살균봇'을 활용 호텔 객실

을 살균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연했다.

LG 클로이 살균봇은 UV-C(Ultraviolet-C) 램프를 이용해 세균을 제거한다. UV-C 자외선은 100~280nm(나노미터=1억분의 1m) 파장의 자외선으로 각종 세균을 제거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Korea Conformity Laboratories)은 이 로봇에 있는 UV-C 램프가 50cm 이내 거리에 있는 대장균을 99.9% 살균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이 로봇은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한다. 로봇의 높이는 160cm 정도이고 몸체의 좌우 측면에는 UV-C 램프가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LG '모바일 인력' 전장 배치되나

**스마트폰 대신 미래차 집중  
5G 관련 국제특허 글로벌 3위  
통신·단말기술, 전장 이식 기대  
지난해 VS 투자비중 20% 육박**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인력 재편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CEO)는 "MC사업본부의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된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24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MC(모바일커뮤니케이션) 사업 본부의 직원 수는 3700여 명 정도다.

LG전자는 사업부 축소, 초프리미엄제품 중심 운영, 매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기존 MC부문의 인력 이동은 불가피하다.

LG전자는 성장 정체기에 놓인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고 대신 전장, 인공지능(AI), 로봇사업 등에 사업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모바일 인력 상당수가 VS(전장부품) 등 미래 핵심 사업으로 상당 부분 이동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전장 분야는 LG가 최근 키우는 사업인 만큼 대대적인 투자와 인력이 필요하다. 5G(5세대 이동통신)로 본격화된 자동차의 전장화는 통신기술 등이 핵심이다. 실제 최근 자동차에는 다양한 통신기술이 대거 적용되고 있다.

LG전자는 5G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대학교와 지적재산권 조사업체인 아이플릭스(IPlytics)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노키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G 이동통신 관련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1월 기준 5G 특허 출원 2236개, 등록 완료 1415개를 기록했다.

LG전자 모바일 출신들의 기술력은 이미 자동차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과거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블루링크(Bluelink)와 유보(UVO)를 개발하면서 소프트웨어팀을 구성했는데, 구성원들끼리는 예전에 LG에서 봤던 얼굴들이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LG전자 모바일 출신들은 자동차 분야로도 많이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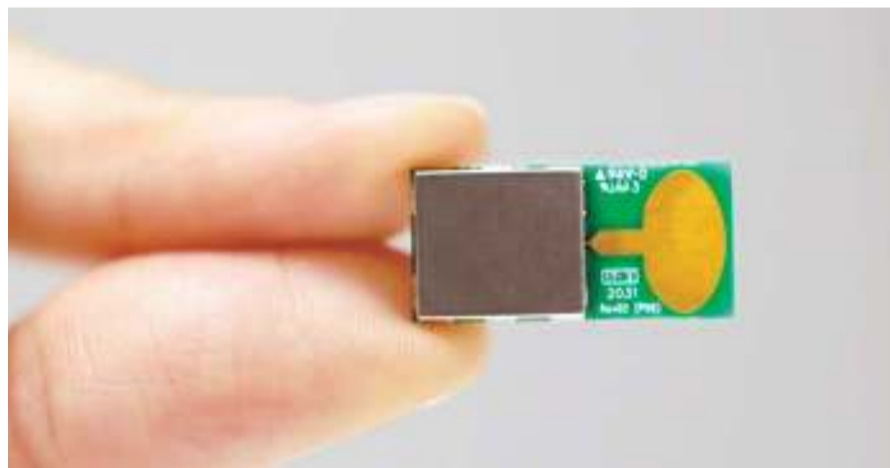
그만큼 LG전자의 스마트폰, 통신 기술이 뛰어나고 이를 자동차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G전자는 세계 3위 캐나다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의 합작법인(JV)을 설립과 MC사업본부의 인력재편을 계기로 전장 사업에 더 기술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의 VS사업본부 투자액은 2015년 2072억 원에서 지난해 6070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LG전자 사업본부 전체 투자 금액 중 VS사업본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9%에서 지난해 19%까지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와 첨단 전자장치가 탑재된 자율주행차가 미래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LG전자가 이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 전장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LG이노텍, 차량용 디지털키 모듈 개발

**차에 장착 '폰'으로 문 열고 시동  
위치 인식·해킹 방지 기술 개선**

LG이노텍은 위치 인식 정확도와 보안성을 높인 차량용 디지털키(Digital Key) 모듈(사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키 모듈'은 차량에 탑재해 자동차와 스마트폰 간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부품이다.

디지털 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문을 열고 잠그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 키다. 운전자는 스마트폰으로 차량 제어는 물론 주행거리, 연비,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상태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고, 트렁크 개폐 등 특정 기능만을 허용할 수도 있다. 열쇠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자동차 키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스마트폰이 자동차 내부에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 차량 도난 위험이 적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맞춤형 주행 환경 제

공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자동차 한 대를 함께 쓰는 경우 개별 스마트폰 위치를 인식해 운전석 시트나 사이드미러 등을 해당 운전자에 최적화해 자동 세팅한다. 같은 디지털 키를 가진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탑승해도, 현재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번에 LG이노텍이 개발한 '디지털 키 모듈'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 UWB(Ultra Wideband·초광대역) 기술과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해 위치 인식 정확도를 높였다. 기존 대비 약 5배 정도 더 정확하게 스마트폰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 실제 스마트폰 위치와 모듈의 인식 위치 간의 오차범위를 기존 50cm에서 10cm 이내로 줄인 것이다.

보안성도 높였다. 자체 개발한 통신 해킹 방지 기술을 적용해 차량-스마트폰 간 통신 조작이나 전파 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분실이나 디지털 키 해킹으로 인한 차량 도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이다.

송영록 기자 syr@

# SK이노 'K-그린' 친환경 캠페인

**그린 에너지·소재 증장기 육성**

SK이노베이션은 '그린벨런스 2030'의 강력한 달성 의지를 담아 친환경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K-그린'을 소재로 '2021년도 PR 캠페인(사진)'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그린벨런스 2030 전략은 SK이노베이션이 2030년까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겠다는 중장기 성장 전략이다. 친환경 분야 사업으로 담체인지(Deep Change·근원적 변화)를 통해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다. PR 캠페인의 주제인 K-그린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친환경을 대표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PR 캠페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국민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이 캠페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전사의 성장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완성하는 전략인 그린벨런스의 강력한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친환경 상징인 K-그린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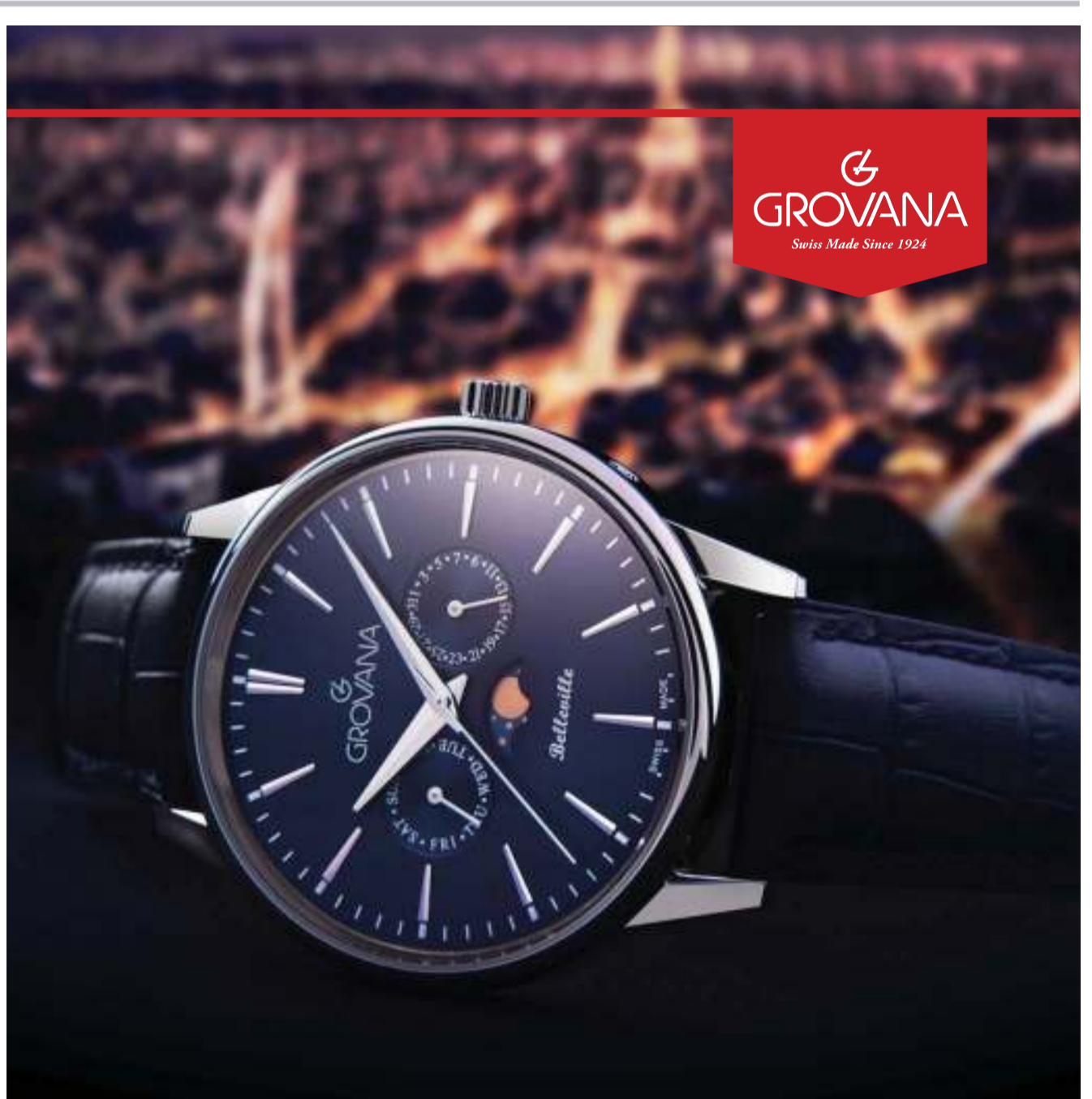
SK이노베이션은 전사적으로 '그린 에너지



자와 그린 소재(Green Energy & Green Materials)'를 목표로 배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각 사업에서도 '친환경 강화, 탄소 저감'의 방향으로 사업구조 및 내용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 센터장은 "우리 국민의 혁신 DNA는 대한민국 친환경인 K-그린을 완성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SK이노베이션이 친환경 사업 중심 담체인지를 통해 성장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해 국민과 대한민국을 K-그린으로 응원하면서 K-그린 시대를 견인하는 캠페인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 SKT 'AI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업' 도전장

SK텔레콤(SKTEL)이 인공지능(AI)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업에 진출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SKT는 AI 법률 자문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KT는 지난 19일 특허청에 'Legal AI agent' 상표를 출원했다. 20개 까지 지정 가능한 상표의 용도(지정상품)에는 법률문제 자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문제 상담 서비스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률정보제공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돼

**'Legal AI agent' 상표 출원...脫통신 속도 법률문제 상담·정보제공 SW 등 용도 등록**

있다. SKT 관계자는 "자사 법무팀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다만 정식 서비스 출시 전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탈 통신에 전념하고 있는 SKT는 올해 신년사에서부터 AI의 전방위 확산을 강조 했다. AI 법률 서비스 출시는 그 결과로

풀이된다. 박정호 SKT 대표는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많은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며 "상황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AI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SKT의 AI 서비스에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을 밝힌 셈이다.

박 대표는 지난달 조직개편에서도 AI 전담조직을 이동통신(MNO) 사업부 아래로 옮겼다. 통신상품과 서비스에서부터 AI를 접목하겠다는 박 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 즉, AI 조직이 별도 조직이 아니라 모든 사업 분야에 투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AI 법률 자문 서비스가 기존 SKT의 AI 서비스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SKT는 지난달 삼성전자, 카카오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AI 초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으로 콘셉트는 '팬데믹 극복 AI'다. 이 서비스는 공공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특정 지역의 거리두기 정보 등을 제공한다.

SKT는 이외에도 AI 비서 '누구', AI 상담사 '누구 인포콜', AI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누구 셀럽'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AI 반도체를 출시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심의 미래 반도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국내 유일 아마존 알렉사 파트너사... 인공지능 선도”

**인터뷰 신민영 아이콘에이아이 대표**

**아마존 AI비서 '알렉사' 시스템통합 업체로 선정 AI스피커에 뷰티·헬스케어 접목, 틈새시장 공략 하만 카돈과도 전략적 제휴... 2023년 IPO 목표**

“알렉사, 오늘 날씨 알려줘.”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서 알렉사는 2014년 11월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다. 지금은 전 세계 점유율 67%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런 알렉사와 손잡은 유일한 한국 스타트업이 있다. AI 스타트업 아이콘에이아이(ICON.AI)다.

아이콘에이아이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로 아마존 알렉사 시스템통합(SI) 업체로 선정됐다.

신민영 아이콘에이아이 대표는 “SI의 역할은 AI 스피커 제조사가 알렉사를 탑재할 경우 아마존 대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사가 인증한 테스트랩도 국내 유일하게 보유하고 알렉사 탑재 기술 개발, 컨설팅 인증 테스트, 인증 대행 등도 수행한다.

지난해 7월에는 '음성인식 상호호환성 이니셔티브(VII)' 협력사로도 선정됐다. 아마존 VII가 되면 1대의 AI 스피커에 알렉사뿐만 아니라 타사 AI 플랫폼을 탑재할 수 있다. 영어로는 알렉사를, 한국어로는 국내 AI 플랫폼을 탑재한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VII 동기는 썬캡,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유수의 기업들이다.

신 대표는 “알렉사 SI 기업은 링크플레

이, 콤스코프와 아이콘에이아이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콘에이아이는 '기존 AI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으로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기업'으로 자신을 스스로 정의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시장까지 공략해 AI 스피커 시장의 선두에서 쟁단 포부다.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관련 기술특허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디자인 특허도 갖췄다.

신 대표는 “아이콘에이아이만의 시장 진입장벽을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걸맞게 올해 아이콘에이아이는 CES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제트(Z)케어'를 출시했다. AI 스피커에 휴대가 가능한 탈부착 트래커를 달았다. 트래커에 손가락을 대면 1분 안에 심박 수, 혈압, 산소포화도 등 신체 정보를 AI가 확인한다. 수치가 정상시와 다른 위급 상황에는 자동으로 비상 연락처와 병원에 연락도 취한다.

지난해 CES 2020에서 선보인 스마트 메이크업 미러에 이어 1년 만이다.

그는 “뷰티 쪽에 AI가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아 기회도 많다”며 “뷰티·헬스케어 스마트 기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용률이 높지 않지만, AI 스피커와 결합하면 사용



신민영 아이콘에이아이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AI 스피커를 시작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아이콘에이아이

빈도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타트업인 만큼 차별점이 필요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프리미엄 스피커 기업인 하만 카돈과 전략적 제휴도 맺었다.

신 대표는 “평소에 스피커로 음악을 많이 듣는데, AI 스피커의 음질도 중요하지 않나”며 “아이콘에이아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올릴 수 있고 품질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신 대표는 “소프트웨어가 준비된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살려 최고의 소비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드웨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매력적인 스마트 기기를

통해 소비자를 매혹하고자 한다”고 했다.

올해 전 세계 AI 스피커 시장은 128억 5000만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이콘에이아이는 이런 흐름의 맨 앞에서 있다. 신 대표는 “이 시장은 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했다.

아이콘에이아이는 국내 AI 스피커 시장 역시 커지고 있는 만큼 알렉사와 한국어 AI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탑재한 기기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2023년 상장(IPO·기업공개)이란 목표도 세웠다.

신 대표는 “AI 스피커를 시작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며 “직원들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시작

**나이율 1.9% 최대 10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들이 최대 1000만 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전 9시부터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1.9%) 1000만 원 용자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1일부터 집행되고 있는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고, 1차 지원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지자체 등으로부터 목록을 받아 25일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임차료 대출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대출금리 및 한도는 1.9% 고정금리며 업체당 1000만 원이다. 대출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형식이다.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온라인 대출(소진공 홈페이지) 위주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는 시중은행(신한) 대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총 4~5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과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업종별로 보면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은 1인당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KT, AI 기술로 코로나 잡는다

**감염병 대응 연구앱 '샤인' ... 참여자 모집 데이터 연구 일반인도 앱 내려받아 증상 입력하면 위험도 확인 가능**

KT는 24일 빌&벨린다 게이츠 재단(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비 솔루션 개발을 위해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샤인(SHINE·Study of Health Information for Next Epidemic,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 정보 연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KT컨소시엄과 게이츠 재단은 각 60억 원씩 공동출자해 감염병 확산 방지 연구를 위한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A Next Generation Surveillance Study for Epidemic Preparedness)' 지원 계약을 맺었다.

KT는 국내 협력 기관인 '고려대학교 의과원', '모바일닥터', '메디블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함께 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감염병 대응 연구에 착수했다.

KT는 국내 협력기관들과 함께 연구용 앱인 '샤인'을 공동개발했다. 샤인 앱은 사용자 주변의 코로나19 등 질병 발생 현황을 알려주며 발열, 두통, 기침 같은 독감 유사 증상을 입력하면 감염병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블록체인을 적용해 안전하게 보관된다.

샤인 앱을 이용한 감염병 연구 데이터 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첫



KT 관계자들이 SHINE 앱을 이용한 연구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째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팀이 국내 3개 병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함께 진행하는 임상연구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호흡기 검체 채취 검사로 정확한 감염병을 진단한다. 이후 연구참여자가 입력하는 감염병 증상 데이터를 수집해 연구에 활용한다. 둘째로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애플 앱스토어', '윈스토어'와 '샤인 홈페이지'에서 샤인 앱을 내려받아

참여할 수 있다.

KT와 컨소시엄은 샤인 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AI 기반의 감염병 대응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T는 고려대학교 의과원과 함께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모바일닥터와 이용자의 감염병 증상과 과거 동선 기록을 분석해 독감,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KISTI는 통신사의 로밍 데이터, SNS, 언론기사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메디블록은 연구 참여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김형욱 KT 미래가치추진실 부사장은 “KT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를 포함한 신·변종 감염병의 조기 진단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인기 시들 '편의점 도시락' 프리미엄으로 '부활' 꿈꾼다

팬데믹 시대 매출 효과 예상 깨고 배달주문 앱·밀키트에 밀려 '영양 불균형'·'비싸다' 소비자 외면... 간편 대신 '퀄리티' 집중

편의점 도시락이 대대적인 리뉴얼에 나선다. 편의점 도시락은 당초 코로나19 확산으로 높은 인기가 예상됐지만, 배달 주문 앱의 공세와 밀키트의 도전에 맥없이 무너지며 과거의 영광을 이어가지 못했다.

편의점 업계는 '간단한 한 끼' 대신 '제대로 된 한 끼'에 집중하며 퀄리티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코로나19 덕 볼 줄 알았는데=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편의점의 즉석식품 매출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국내를 강타한 지난해 3월 -14.5%를 기록하며 통계작성 이래 최악의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4월에는 -15.6%로 더 크게 주저앉았다.

5월 역시 -11.2%로 두 자릿수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

6월과 7월, 8월에는 각각 -6.1%, -2.8%, -5.6%로 역성장했고, 9월과 10월, 11월에도 -5.2%, -5.1%, -9.2%로 역진장을 이어갔다.

지난 몇년간 편의점 성장세를 이끌던 카테고리는 단연 즉석식품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락으로 매출 비중은 60~70%에 이른다.

김혜자·백종원으로 대표되는 편의점

도시락은 편의점 효자상품으로 2010년대 중후반을 호령했다.

2014년 만해도 한 자릿수 성장율을 보이던 즉석식품 매출은 2015년 연예인 도시락 열풍으로 두 자릿수로 커지더니 급기야 2016년 한해 매출 성장률은 50%에 육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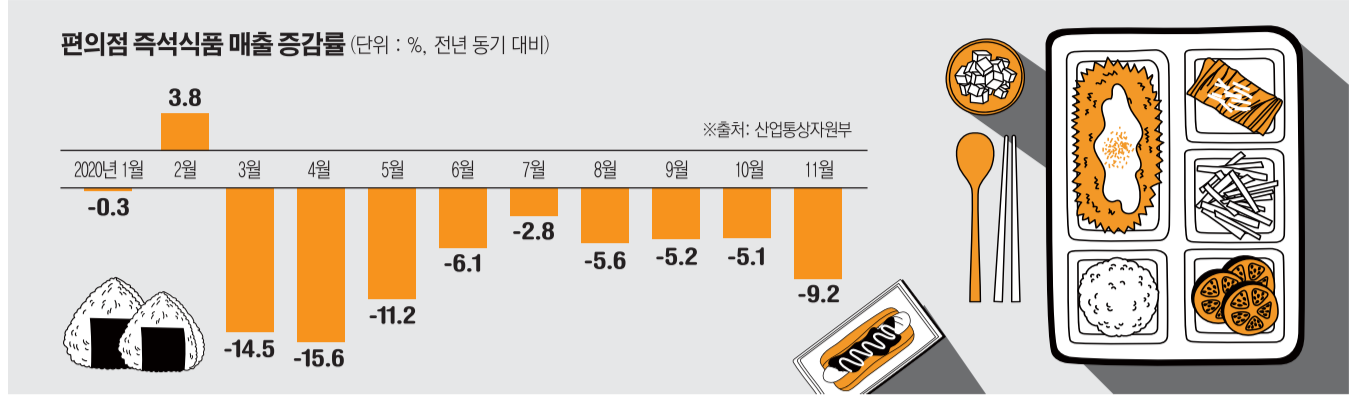
2018년까지 두자릿수 신장세를 이어가던 즉석식품 매출은 지난해부터 한자릿수로 꺾이더니 코로나19 여파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작년에는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즉석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분기 10.3%에서 11월에는 9.0%로 1.3%p(포인트)로 줄었다.

◇밀키트 시장까지 성장... 눈 높아진 소비=도시락의 몰락은 '집밥'과 무관하지 않다. 재택 근무 활성화와 등교 제한에 따라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주 소비층은 회사원과 학생 수요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집밥 증가로 밀키트 시장이 편의점 도시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나갔다.

실제 네이버의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판매된 상품 중 HMR과 밀키트 판매는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마트의 지난해 9월 밀키트 매출도



전년보다 3배 폭등했다. 약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편의점 도시락을 외면하는 이들도 늘었다.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현대선 교수팀이 지난해 9월 편의점 상위 5곳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제품 93개를 사들인 뒤 영양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지방·포화지방이 하루 권장량의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나트륨 함량은 하루 권장량의 2/3로 높다.

1인분 배달이 가능한 외식업체가 늘어난 것도 도시락의 하락을 부추겼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소매 중 음식서비스의 전년동기대비 거래액은 1분기 82.2%, 2분기 94.9%에 이어 3분기에는 83.4%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배달의민족' 앱 다운로드 수는 5400만 개에 달하기도 했다.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에도 편의점 도시락 가격은 되레 올랐다. 5년 전 2500~5000원대 수준에서 최근에는 4000~6000

원 대로 경증 뛰었다. ◇퀄리티 높여 재도전=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편의점들은 도시락 퀄리티를 높이고 밀키트 영역까지 발 디딤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영양가 있는 제대로 된 한 끼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BGF리테일은 이달 1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HMR 전담팀을 꾸리며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엔 잠조기 구이를 활용한 '제주 참조기 정식' 도시락을 내놓고, 신선 HMR '떠먹는 피자'로 출시했다. 아울러 불고기 바질파스타 등 식물성 원재료로 만든 채식 도시락을 선보이는 한편 업계 최초로 프리미엄 베이커리 라인을 론칭했다.

2013년 업계 최초로 식품 연구소를 설립한 GS리테일도 밀키트를 확대하고, 도시락 품질 높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0월부터 국립공원공단과 손잡고 주 메뉴에 지역특산물 식재료를

활용하고 지역농산물 원산지 표기한 '국립공원도시락'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고, 편의점용 밀키트 '심플리룩'을 통해 진생용 셰프의 '심플리룩진기쭈꾸미짬뽕' 등을 내놴다.

세븐일레븐은 '맛' 홍보대사 배우 김수미와 함께 김수미표 레시피를 담은 간편식 시리즈로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춘다. 집밥 컨셉트의 도시락으로 전문 요리 프로그램에 소개돼 인기를 끌었던 김수미표 반찬으로 푸짐하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중앙연구소와 협력해 품질 관리를 하는 이 업체는 2019년 3월에는 업계 최초로 '밥 소물리에' 자격을 딴 MD(상품 기획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마트24도 최근 프리미엄 상품을 찾는 고객의 입맛을 잡기 위해 소고기를 활용한 '수란품은 소불고기 규동'과 '블랙페퍼와규버거'를 내놓는 한편, 조선호텔 유니짜장 밀키트도 선보인다.

남주현 기자 joo@  
인경무 기자 noglasses@

## “나이·성별 개인 맞춤형 건기식 드세요”

일동후디스 '하이문' 통합 재편·빙그레 '닥터캡슐 1000' 리뉴얼  
풀무원 소분 서비스 '퍼팩' 론칭... CJ, 개인 맞춤형 모델 구축

건강기능식품이 진화한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기존 식품이 건기식으로 변화를 꾀하거나 기존 건기식 브랜드를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 세분화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24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4조 980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조 6310억원이던 건기식 시장 6년만에 3배 이상 커졌다.

식품업계는 기존 제품을 건기식 브랜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일동후디스는 하이문 단백질 프로틴 제품인 '하이문'을 건기식 통합 브랜드를 재편하고 신제품 8종을 함께 선보였다. 기존 밀크씨슬, 오메가3 등의 건기식 제품들은 하이문 브랜드로 통합된다.

신윤경 일동후디스 과장은 "하이문의 단백질 발렌스가 지난해 2월 출시 이래로 순 매출이 300억 원을 달성

하며 성적이 좋아 올해는 건기식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라면서 "분유 등 기존 영양유를 타깃으로 삼던 포트폴리오를 건기식까지 확대해 중장년층까지 타깃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후디스의 올해 하이문 브랜드 매출 목표는 500억 원이다.

빙그레는 지난해 마시는 발효유 '닥터캡슐1000' 출시 20년을 맞아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씨슬, 핫가추출물을 첨가해 리뉴얼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단일 제품으로 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빙그레는 남성과 여성을 위한 건기식 브랜드도 선보였다. 여성 전문 건강 브랜드 '비바시티'에 이어 지난해 10월 남성 건강 브랜드 '마노플랜'을 출시하며 성별에 따른 건강 고민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도 등장하고 있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하는 서비스 '퍼팩'을 론칭했다. 개인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 정보 등 바탕으로 풀무원건강생활 소속 전문가가 고객과 면담 후 적절한 건기식을 추천한다.

풀무원녹즙은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녹즙을 추천하는 '개인맞춤형 녹즙 구독서비스', 맞춤으로 건강관리 식단을 제공하는 '디자인밀'을 잇따라 선보이는 등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 개발에 공들이고 있다.

CJ제일제당도 맞춤형 건기식 시장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앞서 지난해 CJ제일제당은 한국 이원외소재재단과 미국 다이애그노믹스사의 한미 합작법인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와 '한국인 맞춤형 건기식' 공동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연내 개인 맞춤형 건기식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유전자검사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미래 건강상태를 예측해 자신에게 맞는 건기식 제품을 살 수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현대백화점은 4일부터 22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 매출을 중간 분석한 결과 한우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 예약판매와 비교해 40.2%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세트별로 보면 등삼·안삼·채끝 등 구이용(스테이크·로스) 부위로만 구성된 세트 매출은 지난해 설 예약판매와 비교해 51.7% 늘어났다. 기존 한우 선물세트의 대명사였던 찜 갈비·불고기 부위로만 구성된 세트 매출 신장률(26.5%)의 두 배 수준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롯데·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떠난다

2월까지 영업 후 철수

롯데, 신라면세점이 내달 말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서 철수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 차기 사업자 선정이 1년 가까이 미뤄진 가운데 내달 말 롯데,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운영을 종

료한다. 다음 달이 지나면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만 남게 된다.

롯데,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계약만기 예정이었으나 앞서 인천공항이 지난해 3월 롯데, 신라면세점에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영업 연장을 요청했다.

입찰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지

만 코로나 19로 신규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했기 때문이었다.

이들 면세점은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연장했다.

하지만 관세법상 재연장은 불가능한 만큼 2월이 지나면 롯데,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자동철수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에서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DF3 구역, 신라면세점은 DF2(화장품·향수), DF4(술·담배), DF6(패션·잡화) 구역에 들어

서 있다. 이들 면세점이 1 터미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다.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기간이 남은 신세계면세점이나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의 영업면적을 넓혀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빠진 자리를 채우기는 힘든 상황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도 지난해 유찰된 뒤 아직 계획이 없어 당분간 롯데와 신라면세점 구역은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은 지난해 면세점 6개 사업권 입찰이 3연속 유찰된 바 있다. 앞서 롯데, 신라면세점은 해외사업도 정리했다. 호텔신라는 합작법인 '다가시마아 듀티프리 신라&아나'를 통해 일본 도쿄 시내면세점을 운영했지만, 영업 종료했다.

롯데면세점도 수익성이 부진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면세점과 태국 방콕 면세점 철수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 폐기물 업체 'M&A 핫딜'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 M&A(인수합병) 시장에서 '핫딜'로 주목을 받았던 폐기물 업체가 올해도 기업들의 관심을 받으며 M&A 시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진입장벽이 높고 경기를 타지 않는 데다, 다양한 환경산업 밸류체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신성장동력을 찾는 대기업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건의 폐기물 업체가 M&A에 성공했다. IS동서와 E&F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이 맥쿼리PE가 갖고 있었던 코엔텍 지분 59.29%를 인수했다. 인수가 5000

코엔텍·ESG·EMC홀딩스, 지난해에만 3곳 인수합병 성공  
경기 영향 적고 밸류체인 확대 가능성... 대기업 관심 고조  
사모펀드 보유한 EMC·창원에너텍·이메디원 등 매물 전망

억 원이다. 국내 의료폐기물 업체인 ESG 지분 100%를 KKR이 9000억 원에 인수했고, SK건설이 EMC홀딩스 지분 100%를 1조 원에 인수하는 등 폐기물업체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M&A 시장에서 크게 흥행했다.

올해도 폐기물 업체의 딜 흥행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 증가로 그룹차원에서 환경산업을 신사업으로 삼고 강화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올해는 폐기물 업체 M&A가 전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모펀드에서 기업으로의 손바뀜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SK그룹은 환경산업을 신성장 포

트폴리오로 삼고 계열사별로 가지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태영그룹도 자회사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을 통해 폐기물처리와 수처리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그룹도 '2050년 탄소배출량 0'을 선언하고 수소사업, 2차전지 소재, 폐배터리 재활용 등 밸류체인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사모펀드들은 2017년부터 개인 위주의 영세한 비즈니스 구조로 영위되어 왔던 폐기물 처리기업들의 인수를 진행해왔다. 이후 적극적인 '볼트온 전략'을 실행해 밸류에이션을 높여왔다.

IB업계에서는 올해 M&A에 나서게 될

사모펀드가 가진 폐기물 업체로 △IMM인 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EMC) △SG PE, SKS PE가 보유한 창원에너텍 △한투PE가 보유한 이메디원 등이 꼽힌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폐기물 기업들은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기업이 인수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외형 확대 뿐만 아니라 폐촉매 산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 2차 매출 산업 진출도 용이하기 때문에 인수 후 대기업들이 폐기물 연료화 시장에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공매도 금지 재연장 '무계'... 설 전 당정 협의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간 설전이 예상된다.

◇공매도 재개, 안갯속 =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개인투자자들 덕분에 국내 증시 주도권은 기관·외국인에서 개인투자자로 변화를 겪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상황에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이용해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공매도 재개가 곧 주가 하락'이란 공식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가 증권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중과 거래대금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인 만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인 자금조달 길 터줘야 = 결국 공

### 공매도 자금 조달 현황

대차시장(외국인·기관)		67조 원
예탁결제원	54조 원(80%)	
증권사	10조 원(16%)	
증권금융		3조 원(4%)
대주시장(개인)		230억 원
유통대주(증권금융)	156억 원	
자기대주(증권사)	74억 원	

\* 출처: 한국증권금융 추정치

### 공매도 시장 규모



막강한 자금력 가진 외국인·기관 대량 공매도로 시장 변동성 높여 "제도적 보완없이 재개 힘들다"

정치권, 금투업계 의견 반영 한시적 금지 3-6개월 추가연장 대형주 중심 단계적 재개 '고심'

매도 금지 연장 또는 재개 등 어느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자금조달 조건의 불합리성 개선이 관건으로 꼽힌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대차시장(외국인·기관)은 외국인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67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 중 차입 매도 공매도 시장은 총 15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반면 대주시장(개인시장)은 총 230억 원이며, 공매도 시장 규모 또한 23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 입장에서 국내 개인 공매도 시장을 키워야 하는 실익과 명분이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김우람 기자 hura@

하지만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중전 규정이 일정 기간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국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일부 중소형 종목에 집중하고,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인데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대주 주식(대주) 규모를 현재의 약 20배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치권에서도 금투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이다.

유권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매도는 시장의 과열을 해소,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며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매도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연초부터 달아오른 회사채 시장

GS 1조7000억·신세계 9400억 1월 수요예측 초과율 634% '최고' "저금리 환경에 기업 투자 재개로 올해 회사채 발행시장 강세 지속"

연초부터 회사채 발행시장 열기가 뜨겁다. 회사채 발행에 우호적인 금리환경과 함께 경제 정상화 기대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되면서 올해 회사채 발행시장의 열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크레딧업계에 따르면 1월 월간 수요예측 초과율은 634.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올해 수요예측 첫 주 자였던 GS와 SK텔레콤은 대규모 투자수요가 몰렸다. GS는 모집금액의 10배가 넘는 1조7000억 원의 유효수요가 몰렸고, SK텔레콤은 6배를 상회하는 유효수요가 몰려 발행액을 모두 늘렸다.

롯데칠성음료도 1600억 원 모집에 1조7000억 원의 유효수요가 몰려 최대 증액 발행금액은 2500억 원으로 발행했고, 신세계와 롯데지주도 수요예측에서 각각 9400억 원, 1조 원이 넘는 유효수요가 들어와 각각 2700억 원, 4000억 원 증액 발행했다. 엘지헬로비전, 신세계푸드도 각각 기존모집금액 보다 9배, 5배가 넘는 유효수요와 유효경쟁률을 기록했다.

크레딧업계는 시장의 예상보다 크레딧 시장의 강세 분위기가 더 세다는 평가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작년 4분기에 발행량이 크지 않아 그동안 회사채 매수를 기다렸던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1월 회사채 발행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회사채 발행에 우호적인

### 1월 회사채 발행 현황 (단위: 억 원)

종목명	신용등급	모집금액	수요예측	발행확정
GS	AA0	1200	1조7000	2000
SK텔레콤	AAA	2000	1조1700	3100
롯데칠성음료	AA0	1600	1조7000	2500
신세계	AA0	2000	9400	2700
롯데지주	AA0	2500	1조1900	4000
엘지헬로비전	AA-	1200	1조1900	2300
현대제철	AA0	2500	2조700	5000

금리환경과 기업의 투자재개로 올해 회사채 발행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통상적으로 낮은 금리는 크레딧물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촉발하는 요인이다. 특히 올해 회사채 발행시장의 특징은 10년물 장기 회사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낮은 금리 환경 속에서 절대금리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록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저금리 지속으로 좀더 높은 금리를 찾는 투자수요가 많아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장기물 발행 비중이 우량등급을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회사채 발행 확대 요인은 기저효과와 경제정상화 기대로 기업들의 투자 재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회사채 발행은 기업들의 투자사이클을 따라간다.

이성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경기 회복시기에 집행되는 캐백스는 연초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데다 설비투자과 상관관계가 높은 경기선행지수 역시 최근 크게 상승했다"면서 "올해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증시 활황에 증권사 '실적 잔치' 6개사 4분기 순익 25.4% 증가한 9329억 한국금융지주 45% 뛰며 1위...키움 제쳐

증권사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역대 최대' 잔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증권사의 호실적은 예상 가능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IB 뒷심과 개인투자자를 이끄는 키움증권의 저력이 돋보였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6개 증권사(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메리츠증권)의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5.4% 증가한 9329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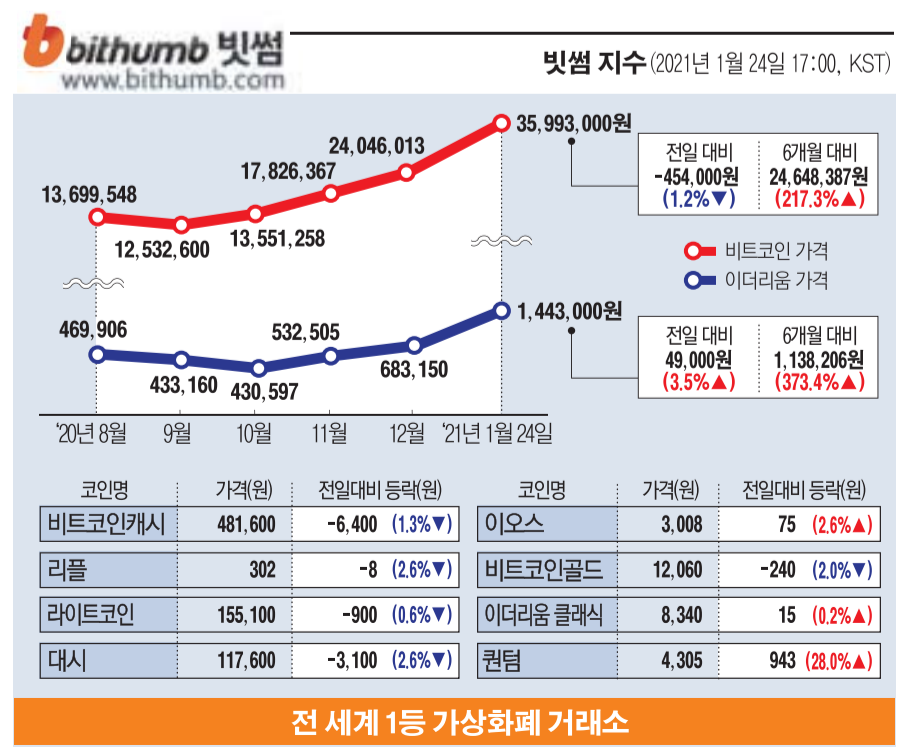
이중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는 한국금융지주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로 4분기 순이익만 2208억 원, 전년 동기보다 45% 이상 실적이 늘었다.

4분기 실적은 한국투자증권의 '뒷심'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특히 3분기까지 기업공개(IPO) 주관 실적에서 2위를 자리를 지켰으나, 12월에만 프리시전바이오, 지능엔컴퍼니, 석경에이티 등 3개 기업을 상장시키며 단숨에 실적 1위로 올라섰다.

또한 지난해 3분기 '증권사 중 순이익 1위' 결과로 놀라움을 자아낸 키움증권은 4

분기에 한국투자증권에 자리를 내줬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2위 자리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의 이익은 당연히 브로커리지 수수료에서 나왔다. 4분기 브로커리지수익은 2278억 원으로 미래에셋대우(2755억 원), 삼성증권(2514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3분기보다는 수익이 다소 줄었는데 이는 영업일수 축소와 완만한 수탁 수수료를 하락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키움증권은 거래대금과 주식시장 방향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강점이자 약점이다. 손영지 기자 eom@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 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 뱅골프클럽으로 **100** yd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 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로,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정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아현 1구역 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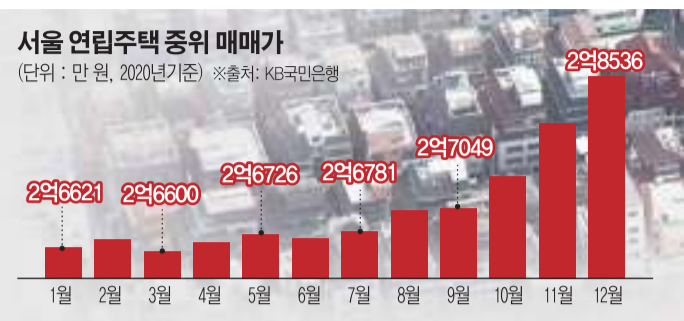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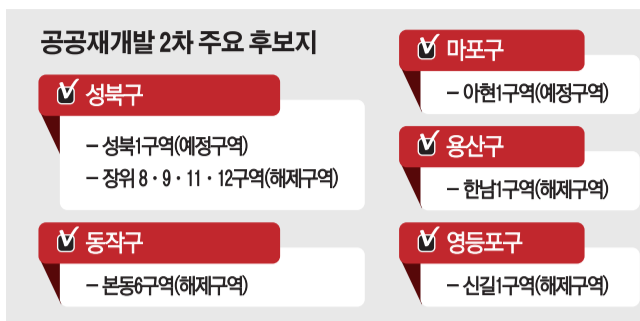
# 한 달 만에 5000만원 ‘깡충’…빌라값 띄운 공공재개발

1차 발표後 ‘10억’ 넘는 지역 나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3월말 발표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 ‘부활전’ 노력

공공 재개발 사업이 서울 다세대·다가구주택(빌라) 시장을 달구고 있다. 공공 재개발이 확정된 곳은 물론이고 후보지가 지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른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A빌라는 한 달 만에 값이 5000만 원 올랐다. 전용 면적 45㎡·대지권 29㎡인 이 빌라는 지난 연말 7억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집주인은 이번 주 초 7억8000만 원으로 값을 올리더니 주말엔 8억 원까지 부르고 있다.

이 지역 빌라값을 올린 건 공공 재개발 기대감이다. 공공 재개발은 공공재개발은 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도



입이 발표된 후로 빌라 시장엔 집집마다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거란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A빌라가 속한 아현1구역도 지난해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에 참여했다. 아현1구역은 2003년 아현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년 가까이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아현1구역과 인접한 아현 아이파크는 현재 3.3㎡당 4000만~5000만 원, 전용 84㎡형 기준으로 15억~16억 원을 호가한다.

공공재개발 기대감에 하루가 다르게 빌라값이 오르긴 서울 성북구 장위동도 마찬가지다. 장위동 W빌라(전용 62㎡·대지권 30㎡)도 2주 만에 값이 4000만 원 올랐다. 이달 중순 4억9000만 원에 나왔던 물

건이 지금은 5억3000만 원까지 호가한다. 마지막으로 거래된 2018년만 해도 2억 원이 안 되던 집이었다.

W빌라가 속한 옛 장위8구역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유치하려 한다. 장위동 일대 장위뉴타운에서 8구역뿐 아니라 9구역과 11구역, 12구역이 공공 재개발에 뛰어들었다. 과거 재개발을 추진하다 서울시 정책과 내부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들이다. 이들 구역은 공공 재개발 사업을 유치해 ‘부활전’을 노린다.

공공 재개발을 둘러싼 빌라 시장 열기는 이달 초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 재개발 1차 사업지를 발표했을 때도 드러났다. 일부 구역에선 반지하 빌라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투자 수요가 달라붙었다. 서울시가 1주일 만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실거주 목적 외 매매를 차단할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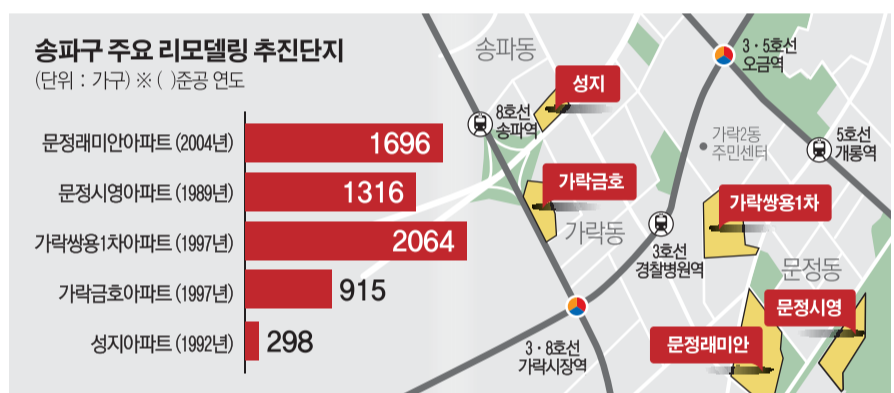
아현1구역과 장위8구역 등 2차 사업지 발표를 기다리는 지역에선 공공 재개발을 향한 열망이 1차 사업지보다 크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지 선정 전과 달리 2차 사업지는 두 지역처럼 정비 예정구역이나 재개발 신규 추진 구역, 정비사업 해제 구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다. 공공 재개발이 아니고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다는 의미다. 투자자로서 공공 재개발 후보지 빌라에 선불리 투자했다가 선정전에서 떨어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서울시 등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3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 수요만 빌라 가격을 띄운 건 아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에 지친 서민들도 빌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연립주택 중위 전셋값(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은 연초 2억6621만 원에서 2억8536만 원으로 7.1% 상승했다. 절대가격만 보면 서울 다른 주택보다 저렴하지만 상승률은 3.8% 오른 아파트나 5.6% 오른 단독주택보다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최근 빌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개발 호재뿐 아니라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평가받은 중·저가 빌라라도 사려는 수요가 더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빌라를 사려면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투자용으로 빌라를 산다면 정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대지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리모델링 바람’ 송파구 집값 들쭉 문정래미안 ‘수직증축’ 2호 도전

대형평형 위주 ‘세대분리’ 병행 전용 170㎡ 지난달 2.5억 올라 문정시영·건영 등 잇따라 추진

서울 송파구에서 준공 15년 연한을 채운 아파트 단지들이 잇달아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역 새 단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도 들쭉이는 추세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문정동 ‘문정래미안’은 수직증축과 세대분리 방식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설(구정) 이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4년 입주한 아파트는 31개 동, 1696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용적률은 292%, 건폐율은 21% 수준이다.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마련돼 총 주차대수가 3258대(가구당 1.92대)로 넉넉한 편이다.

문정래미안의 전용면적은 가장 작은 평형이 84㎡다. 대부분 120~170㎡ 규모의 대형으로 구성됐다. 입주민은 고령층이 많아 리모델링 시 세대분리를 통해 노후에 안정된 임대소득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위정원 문정래미안 리모델링 주민자치추진위원장은 “앞서 허가를 받은 인근의 성지아파트처럼 지반이 암반지대로 이뤄져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업체 분석을 받았다”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갖춰 지하터파기 공사비가 들어갈 게 없고, 대형 가구 위주라 세대분리가 가능한 점 등 수익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조건들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입주민 온라인카페에 절반가량 가입했는데 70% 이상 동의가 나오고 있다”면서 “상반기 조합을 설립하고 수직증축과 세대분리 등을 추진해 250~300가구 이상 신규 분양으로 주민 분담금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정동 문정시영아파트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1차 안전진단을 B등급으로 통과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1316가구에서 1512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문정시영과 함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인 인근의 문정건영은 기존 545가구에서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가락동에서는 2064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가락쌍용1차가 사업에 뛰어들었다. 915가구의 가락금호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최초 수직증축 허가가 난 송파성지는 기존 298가구를 340가구로 늘리게 된다.

지역 곳곳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면서 집값도 들쭉이고 있다. 문정래미안 전용 170㎡형은 지난달 17억5000만 원에 매매 거래됐다. 동일 평형의 직전 거래가인 전 달 15억 원에서 2억5000만 원 치솟은 가격이다.

송파동 W공인 관계자는 “리모델링과 함께 재건축도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인근의 위례신도시와 올해 장지동길 신철도로 등 영향이 더해져 앞으로 시세에 점점 더 크게 반영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정필 기자 roman@

## 신축 아파트 입주前 하자보수 완료해야

미이행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운영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지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지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하지란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응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

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아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운영된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 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 상태 등을 점검한다. 문성영 기자 moon@

## 금주의 분양캘린더

1월 넷째 주엔 전국에서 2800가구에 가까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4개 단지에서 2785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 자이 크리스탈오션’,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 남양휴

튼’, 충남 서산시 읍암면 ‘동서산 영무에다움’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13곳이다.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고산수자인 디에스티지’와 수원시 당수동 ‘당수 신혼희망타운’,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등에서 청약 당락이 걸린다.

13개 단지에선 정당계약을 받는다. 경기 성남시 고동동 ‘판교밸리 자이’와 시흥

시 정왕동 ‘거북섬 더엘’ 오피스텔,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양수자인 2차’ 등이 정당계약을 받는다.

6개 단지에선 이번주 견본주택 문을 연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 리첸시아 파빌리에’는 27일, 서울 중구 황학동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 오피스텔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 옥정 더원(the1) 파크빌리지’ 등은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25 (월)	접수	경기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더엘	(수)	접수	충남	서산시	읍암면	동서산영무에다움 2순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내역시티프라다움(민간임대) (~1/29)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경기	남양주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부산기장A2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1/28)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동한국아델리움57에듀힐즈		
										경기	성남시
	광주	연제구	연산동	부산연산2(행복주택) (~1/28)	1/28 (목)		접수	인천	연수구		
										충남	아산시
	1/26 (화)	접수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남양휴튼 1순위	의정부시	고산동		
										발표	경기
계약	경기	부천시	괴안동	역곡역일신건영휴먼하임 (~1/28)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the1파크빌리지			
									1/27 (수)	오전	세종
계약	충남	아산시	배방읍	한양수자인2차 (~1/28)	충북	영동군	용선면	영동용선(행복주택)			
									계약	경기	시흥시
1/27 (수)	계약	충남	서산시	읍암면	동서산영무에다움 1순위	접수	인천	연수구			
									계약	경기	의정부시
계약	충북	영동군	용선면	영동용선(행복주택)	충남	영동군	용선면	영동용선(행복주택)			
									계약	경기	시흥시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피스텔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부동산114 REPS

# ‘SK하이닉스 中 공장 화재’ 구상금 소송 성도이엔지, 배상액 대폭 줄었다

“자회사 지휘·감독 인정 어려워”  
현지 보험사, 2심 사실상 패소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공장 화재로 1조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한 현지 보험사들이 가스공급설비 설치를 담당한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성도이엔지의 배상액은 1000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번 판결은 중국 민법을 준거 법으로 심리가 진행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중국 보험사들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1000억 원 규모의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성도이엔지가 보험사 5곳에 합계 128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7월 성도이엔지의 중국 내 자회사 성도건설에 중국 우시 반도체 공장의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일산 화이질소의 공급을 조절해주는 가스 캐비닛에 고순도 질소가스 배관을 질소 배관 밸브에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가스 공급을 시작하고 6시간이 지난 뒤 화재가 발생해 공장 2500㎡(약 756평)를 태웠다. 가스 캐비닛을 질소 배관 밸브가 아닌 수소 배관 밸브에 잘못 연결해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되면서 정전기를 만나 폭발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재물·휴업손해로 10억 6500만 달러(약 1조1700억 원)를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5개 보험사는SK하이닉스에 8억6000만 달러(약 9500억 원)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중국 보험사들은 자국에서 성도건설을 상대로 손해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장쑤성 고급법원은 성도건설이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최고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중국 보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1000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도건설 직원이 배관을 잘못 연결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고, 성도이엔지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심은 성도이엔지가 보험사들에 10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성도건설과 성도이엔지는 각각 다른 나라에 설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수년 동안 원칙적으로 사업과 자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봤다. SK하이닉스 공사를 담당한 성도건설 직원들에 대한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이나 지배·통제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중국 회사법상 성도이엔지와 성도건설의 연대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성도건설이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성도이엔지에 거액을 배당한 것을 배상 채무 회피로 판단했다. 김중용 기자 deep@



오랜만에 대면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모예배·법회·미사·시일식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졌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첫 주말인 24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자들이 주일예배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등교 확대? 과밀 학급 개선이 먼저”

“지역·학교별 학급 인원 수 달라”  
丁 총리, 등교 확대 검토 지시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등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과밀 학급’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나가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등교를 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교육부에 신학기 등교수업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학교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는 연구 논문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등교 확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과밀 학급 해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현재 과밀학급 등 학급별 인원이 많은

학교는 등교 자체를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지역·학교별로 상황이 다른데 전원 등교, 방역 단계에 따른 일괄적인 등교 지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시급하게 할 일은 등교 선언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학교급별 전체 평균만 놓고 보면 과밀 학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 개별 학교 단위로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집계를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만 보더라도 올해 과밀 학교가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등 총 35곳에 달한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으면 과밀 학급에 해당한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전두환, 항소심 관할 이전 신청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관할 이전을 다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11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앞서 전 씨는 2018년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하며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대영 기자 kdy@

### 둘이서 지인 험담...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공연성 범리 오해” 원심 파기

두 명에서 다른 사람을 뒷담화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통화를 마치고 곁에 있던 지인 C 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 씨는 B 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고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정을 심리해 피고인의 발언이 특정 소수 앞에서 한 것인데도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박영사  
신간도서

##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웍스엔지니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www.pybook.co.kr **박영사**

# 해양환경공 '5대 생태축' 지정... '바다 오염원' 조사 확대

국가 지정 관리 지역 통합·관리 해양생물 보호·서식지 복원 추진 미세플라스틱·방사성물질 감시

해양환경공단(KEOM)은 올해 해양 생태계를 통합·관리하는 5대 해양생태 축을 확정하고 해양해양환경 다매체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 조사를 확대한다. 또 50개 항만 및 주요 해역 내 침적 쓰레기 4000톤을 수거 및 처리한다.

해양환경공단은 2021년 사업계획을 통해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건강한 해양 환경 조성을 통한 생태 복지 실현 △국민 안심 재난·안전대응 체계 공고화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경영 △경영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4대 전략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서해·남해서부 해역 400개 정점을 대상으로 해양생태 계 종합 조사에 나선다. 또 생태학적 중요해역을 대상으로 아열대화 및 서식지 변화 등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 관리 차원의 5대 해양생태축(서해안 연안습지 보전축, 도서해양생태 보전축, 동해안 해양생태 보전축, 물범·상괘이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을 확정한다.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유지를 위해 해양생물의 주요 이동로나 서식지 등 생태계의 연결성을 고려해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해역을 연결한 축을 말한다. 또 2014년 이후 7



해양환경공단은 올해 항만 및 주요 해역 내 침적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해 구룡포항과 비안항 등 50개소에서 총 4000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사업 모습. 사진제공 해양환경공단

년 만에 해양생태도를 갱신한다. 해양 생태도는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해 작성하는 지도를 말한다.

갯간풀, 해파리 풀립, 갯쟁이 모자반 같은 유해성 해조류를 지속, 제거하고 독도의 바다사막화 원인 생물인 성게 제거 및 전적 돌돔 1만 마리 방류 등을 통해 해조숲 복원을 추진한다. 상괘이, 백령도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도 개선한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3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서산옹도, 신안 암태·추포도, 지도·해제면, 순천 화포해역에서 갯벌 복원사업을 확대한다.

공단은 또 올해 해양오염 감시를 위해 전국 연안 425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특별관리해역 6~7회) 조사하는 등 한반도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를 지

속 관찰한다.

특히 최근 국민의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 해양환경 다매체 내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조사한다. 해수는 연 2회 50개소, 해변은 연 2회 40개소, 지표생물 및 해저퇴적물은 각 50개소에서 연 1회 시행한다. 유기수 및 잔류성오염물질(POP)에 대한 정기조사와 해양방사성물질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올해 항만 및 주요 해역 내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구룡포항과 비안항 등 50개소에서 총 4000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주요 무역항만내 22척의 청항선을 통해 부산, 인천·경인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마산항 등에서 총 4468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목

포, 마산, 광양항에 폐유수용시설을 현대화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노후 청항선 2척을 친환경 LNG 연료 추진선박으로 대체한다.

공단은 올해 해양오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해 기상 주의보시에도 방제작업이 가능한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본격 건조(2022년 5월 완공 목표)에 나선다. 선박용 유선드론 시범 운영 방제장비 현대화 방제 전용선 확충 및 전문방제기술지원단 운영 등 방제 대응력 향상을 추진하고 방제대응력 향상을 위한 방제대응센터를 여수와 제주에 신축한다.

올해는 또 침적쓰레기 5척에 대한 영상탐사 및 상해 위해도 평가 등을 시행하고 지난해 추진한 침적쓰레기 2척의 잔존유해인 2단계 작업과 회수작업에 들어간다.

공단은 경영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나선다. 연차사용 촉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대체인력 채용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신규 고용을 확대하고 KOEM형 뉴딜, 민간방제업체 육성·지원, 해외 ODA 사업 등 미래사업 지속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 이 같은 사업계획 추진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지수 90 달성, 해양오염사고 방제율 50% 이상, 미래성장 매출액 1400억 원, 양질의 일자리 연간 3200명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qood@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5부제 일자

출생연도 끝자리	1월 25일 (월)	1월 26일 (화)	1월 27일 (수)	1월 28일 (목)	1월 29일 (금)	1월 30일(토) ~2월 5일(금)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 출처: 근로복지공단

##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50만원'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신청접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힘쓰는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가 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와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지원대상이며 수혜 인원은 9만 명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달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PC만 가능)에서 진행되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 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25~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자가 신청하면 된다. 30일~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내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요건을 확인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인국공 등 31개 공기업 5141명 신규채용

올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등 31개 공기업이 5000명 이상의 인원을 신규 채용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공기업 31곳의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은 이

날 현재 총 5141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채용 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5곳을 포함하면 채용 인원은 더 늘어난다.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

은 인국공의 경우 올해 정규직 40명, 무기계약직 17명, 고졸 채용 3명 등 총 60명을 뽑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규직 신입사원(관리직)을 36명 채용한다.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일반 정규직 1230명과 고졸 채용 170명을 합해 1400명을 채용한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

력, 한국수자원공사 채용 인원은 각각 1100명, 432명, 300명이다.

31개 공기업 중 절반이 넘는 18곳은 상반기 중 채용에 나선다. 해양환경공단의 경우 19일 원서 모집을 마감하고 현재 서류 전형을 진행 중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는 내달에, 한전은 3월 중 원서 모집을 시작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장애라는 무거운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행복한 일터, 편견과 차별을 버리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장애인고용 30년, 함께 하는 도약 1990-2020

☎ 1588-1519 www.kead.or.kr

## “도전과 혁신,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업계 주도”

### SAMSUNG

삼성전자는 올해를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기남(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변화 물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2021년은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며 “신기술·신사업이 부상하며, 기업의 부침도 빨라지고

있고 데이터·인텔리전스 시대로의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한 당부 사항으로 “도전과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창조적 기업으로 변모해, 혁신의 리더십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업계 판도를 주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고객 경험 및 고객 가치를 높이는 기업이 되자”라며 “차세대 신성장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미래 10년을 내다 보며 새로운 준비를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꾸준히 전개해 온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협력 회사와 지역 사회, 나아가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 삼성만의 ‘지속가능경영’을 발전시켜 나가 인류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자”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100년 도전도 다짐했다.

김 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준법 문화의 정착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뢰받는 100년 기업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특히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필수적인 가치를 인지해 안전 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신기업가 정신 발현, 사회문제 해결 앞장”



SK그룹은 올해 최태원(사진) SK 회장이 강조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현해 사회와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최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기후 변화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재난은 사회 가장 약한 곳을 먼저 무너뜨리고 이로 인한 사회 문제로부터 기업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 잘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허락한 기회와 응원 덕분”이라면서 “기업이 받은 혜택과 격려에 보답하는 일에는 서툴고 부족했고 이런 반성으로부터 기업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은 기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SK 역량과 자산을 활용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는 구성원들에게 제안했다.

SK그룹은 최 회장의 제안에 따라 15년간 진행해 온 ‘행복 도시락’ 사업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결식 문제를 맞닥뜨린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올해 역시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의 행복추구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도전과 패기,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기초로 힘과 마음을 모아보자”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그 봄을 재촉해보자”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디지털 전환 가속·친환경 경영 매진”



허태수(사진) GS그룹 회장은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GS 신년회에서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불확실성이 심했던 변화의 시기였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및 사업 구조 개편 등으로 착실히 미래를 준비한 해”라며 “새해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으로 신사업 발굴에 매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를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변화에 적응할 조직 구축을 위해 업무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AI(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은 향후 업무의 필수 요소”라며 “기존 핵심 사업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며, GS가 보유한 유무형 역량을 외부와 협력해 사업을 개선하고 더 키우는 ‘Big to bigger’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사업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해서 기회를 찾아야 하며 계열사 간 인적·물적 역량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신생기업, 벤처캐피탈 등과 협력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고 GS의 투자 역량을 길러 기존과 다른 비즈니스를 만드는 ‘New to big’을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GS그룹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 △고객의 변화와 필요에서 모든 사업이 시작된다는 고객 중심 사고 확립 △데이터와 AI가 중심이 되는 DT(디지털 변혁) 구축 △외부부호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구현 △민첩한(Agile) 조직 실행으로 빠른 실행과 빠른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 조성 등 업무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산업안전·신사업 육성해 백년기업 도약”



포스코는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최정우(사진) 포스코 회장은 4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새로운 위기와 기회 요인이 공존하는 한 해”라고 전망하면서 혁신과 성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4대 중점 방향을 밝혔다.

가장 먼저 안전 체계를 강화한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안전시설은 즉시 개선하고 휴대용 CCTV 등 스마트 안전장치를 완비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철강사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차세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철강사업의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 사들과 공생가치 창출을 통해 국내 철강 생태계 강건화를 이끈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은 그룹사 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식량사업은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다. 이차전지 소재 사업은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에서부터 양극재, 음극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강화한다. 수소경제 도래에 대비해 수소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그룹 핵심 인력을 집중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통해 탄소 중립



을 달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최 회장은 “원점에서 생각하는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방법론을 활용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거나 관행적으로 지나쳤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업무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신성장동력 발굴, 위기 넘어 미래 준비”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권오갑(사진) 현대중공업주 회장 4일 신년사에서 올해 경영목표를 이렇게 요약했다.

위기에 부닥쳤다는 이유만으로 미래 준비에 소홀히 했다간 경쟁자들보다 뒤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회장은 “우리 그룹 각 계열사가 각자의 업종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며 “지금이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연구와 기술, 생산 전 분야에 변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작년 인사 때 작년 한국조선해양 미래 기술연구원장을 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으로, 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을 생산본부장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그룹 내 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별 활동을 시작한다.

권 회장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조선 사업의 경우) 조선 3사는 시너지 창출



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협력과 의존은 다르다. 이제 조선 3사는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올해는 정주영 창업자님의 서거 20주기이다”라며 “창업자님께서는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사고와 자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에 옮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전기차 플랫폼 기반 ‘친환경 선두’ 입지 다진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를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해로 삼을 계획이다.

정의선(사진) 현대차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과는 다른 사회적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함에 따라, 변화를 미리 준비한 기업만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2021년을 미래 성장을 가름 짓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를 위해 친환경 시장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친환경 선두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 발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을 둔 신차 출시로 더 편리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고객의 다양한 취향과 요구를 반영한 매력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기술 역량 확보와 그룹의 사업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자유로운 이동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라며 “그룹의 사업 포트

폴리오를 합리화하고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하는 신성장동력을 지속해서 발굴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객을 중심에 둔 품질 혁신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모든 활동은 고객중심의 첫걸음인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일치단결해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완벽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고객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고객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LG 팬 만들자”



구광모(사진) LG 회장은 고객에 대한 세밀한 이해와 공감, 집요한 마음으로 고객 감동을 완성해 LG의 팬으로 만들어 나가자며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신년사를 담은 디지털 영상 ‘LG 2021 새해 편지’를 통해서다.

구 회장은 첫 번째 포인트로 ‘초세분화를 통한 고객 이해와 공감’을 강조했다.

그는 “세분된 고객별로 각각의 요구를 깊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요구가 아니라 고객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요구를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모든 경험 여정을 세밀히 이해하고, 라이프스타일부터 가치관까지 고객의 삶에 더 깊이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고객 감동을 완성해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일’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고객 인사이트를 어떻게 구체적인 가치로 제품, 서비스에 반영할지 넓고 다양하게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때 AI(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는 새로운 시도가 작지만 중요한 차이를 만들고 비로소 고객 감동을 완성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는 ‘고객 감동을 향한 집요함’을 꼽았다.

구 회장은 “이 모든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객 감동을 향한 집요한 마음”이라며 “고객이 감동하고 열광할 때까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집요함으로 작은 것 하나부터 정성스레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송영록 기자 syr@

## “K-방산,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야”



한화그룹이 올해 ‘가장 한화다운 길’을 통해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할 방침이다.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의 2-3년은 산업 전반의 지형이 변화하는 불확실성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에도 우리는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지속가능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가장 한화다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먼저 미래 성장동력을 계속해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역량 강화와 지배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방산, 에너지를 비롯한 우리의 사업들은 이 순간에도 세계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라며 “혁신의 속도를 높여 K-방산, K-에너지, K-금융과 같은 분야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 항공우주, 그린 수소 에너지, 디지털 금융 솔루션 등 신규 사업에도 세계를 상대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회장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



문했다. 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의 경영 활동 면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탄소 제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경쟁자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빨리 행동”



효성그룹은 고객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경영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세계적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사진) 효성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례 없는 격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기업을 지탱하는 것은 고객의 믿음과 사랑”이라며 “이를 얻기 위해서 효성은 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성을 고객이 믿고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정직한 브랜드, 가격이 아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의 브랜드라는 굳은 믿음을 고객에게 심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 회장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VOC (Voice of Customer) 경영과 데이터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VOC 활동은 경영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그동안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경쟁자보다 더 많이 듣고 더 빨리 행동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VOC를 모아 사업의 방향을 정할 때도, 품질, 생산성 향상을 추진할 때도 데이터에 기반한 치밀한 현상분석이 있어야 빠르고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다”며 “미래는 축적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해 활용하는 기업만이 더 강력한 힘과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향후 10년 결정할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구현모(사진) KT 대표가 올해를 성장 원년으로 삼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 Digico)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구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40년 가까이 이어진 11개 분부체제를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것이 큰 성과이며, 현장 중심 소통과 협업이 이뤄지면서 KT의 핵심조직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구 대표는 올해 코로나 상황과 소비위축, 비대면 전환 등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향후 10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직원을 향해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 번째는 KT의 책임과 사명이다.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현장 안전, IDC·클라우드 및 미디어운용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기본이자 책임이므로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 소상공인, 기업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두 번째로 성장을 강조했다. 지난해 텔코(Telco)에서 통신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



코(Digico)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이다. KT의 조직구조는 광역본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구 대표는 “현장 직원들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고 현장 경험 갖춘 임직원을 핵심 리더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그룹사 역량 합쳐 위기대응 시너지 내야”



“눈앞의 벽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함께 벽을 높혀 도약의 디딤돌로 삼는 한 해를 만들자.”

신동빈(사진) 롯데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인권은 동가 안젤라 데이비스의 ‘벽을 높이면 다리가 된다 (Walls turned sideways are bridges)’는 말을 인용했다.

지나해 코로나19로 그룹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올해는 이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도약하는 뜻을 임직원에게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동빈 회장은 신년사에서 “강력한 실행력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일하고 싶은 회사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임직원에게 전했다.

신 회장은 임직원을 독려하면서도 성찰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나해 약전고투의 현장에서 마스크 위로 보이던 여러분의 눈빛에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결의를 읽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할 정도로 탄탄한 경쟁력을



쌓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유례없는 상황에 핵심역량이 제 기능을 발휘했는지 돌아보자”고 했다.

이어 신 회장은 “그간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껏 간과했던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자”며 “주변 위험요인에 위축되지 말고 각 회사가 가진 장점과 역량을 합쳐 시너지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도전해 달라”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에게 “지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라는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반드시 이기는 한 해”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후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꽃이 피었다”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경쟁환경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올 한 해가 오히려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10년, 20년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도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 부회장은 △고객을 향한 불요불굴(不撓不屈) △구성원간의 원활한 협업과 소통 △다양성을 수용하는 조직문화 등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결코 흔들리지도 굽히지도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하게 나아간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불요불굴’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불요불굴의 유일한 대상은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객에게 광적인 집중을 하기 위



해서는 ‘원 팀, 원 컴퍼니’(One Team, One Company)가 돼야 한다며 온·오프라인 시너지 등 관계사 간, 부서 간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부회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조차 자신이 속한 사업만 바라보는 좁은 사고에서 벗어나면, 그룹 내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자산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통합과 화합 항공산업 ‘시대적 사명’ 완수”



한진그룹은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글로벌 항공역사에 남을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한 해를 보낼 계획이다.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진 의미와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임직원들의 이해와 공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두 회사가 단순히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하늘을 책임지고 있는 양사 임직원들에게 주어 진 운명,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항공업계는 지난해 구조 재편을 이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 통합하기로 지난해 11월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인수 과정을 마무리하고 1~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이르면 2023년 완전히 흡수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면 운송량 기준



세계 7위 규모 항공사가 탄생한다. 조 회장은 “처음엔 함께 하는 것이 서툴고 어색해 힘이 들지만, 작은 것부터 호흡을 맞추고 같이 땀 흘리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 결국 메달을 걸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과정에 힘을 실어줄 것도 당부했다. 조 회장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새롭게 세우나 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 “신재생에너지사업 성과 조기 창출”



구자열(사진) LS그룹 회장은 올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 경영 전략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사업 흐름을 ‘해현경장(解絃更張·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때어 본연의 소리를 되찾는다)’이라는 말에 빗대며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이달 4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과도한 유동성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물자산과 통화의 변동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며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미래 선도형 신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고수익 제품의 판매를 확대는 등 현금 창출을 경영지표의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등 미래성장 사업, 국외 법인의 독자적인 사업역량에도 역점을 뒀다. LS전선, E1, 예스코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규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구 회장은 “태양광-ESS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전 기차 부품과 같은 신사업 분야의 성과를 조기 창출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지속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외국 법인의 현지 우수 인력 확보와 육성, 경영관리 등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노우리 기자 we1228@

### “파괴적 혁신 통한 초격차 핵심 역량 구축”



CJ그룹은 신축년을 맞아 전 사업 영역에서 철저한 체질 개선을 통해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손경식(사진) CJ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과 도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그룹에 대한 쓴소리와 자기 반성으로 신년사를 시작했다. 손 회장은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그룹이 외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초격차 역량에 기반한 구조적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그룹의 현 주소를 진단하면서 “올해 경영 환경도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을 최고 인재, 초격차 역량 확보와 미래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혁신 성장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고,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그룹은 도약을 위해 올해 ‘패러다임 시프트 경영



방침’을 전사 차원에서 공유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초격차 핵심 역량 구축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확보 △최고 인재 육성과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손 회장은 “모든 임직원이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서 최고 인재가 되어야 한다”며 그룹 성장에서 임직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 “사회와 더불어 성장·공동체 가치 공감”



코오롱그룹은 올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거듭날 계획이다.

코오롱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협의체인 원앤온리(One & Only)위원회(위원장 안병덕 부회장·사진)는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위 투게더(We Together) 2021’을 올해의 ‘코오롱 공감’으로 정했다. ‘We Together 2021’은 코오롱 가족 모두가 고객, 사회 전체와 튼튼한 연대의 고리를 이루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야 한다는 메시지다.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위원회는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과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사명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라며 “코오롱 가족들은 마음을 더하고 지혜를 곱하고 어려움을 나눈 우리만의 성공 방정식을 세상 밖으로 넓혀 고객, 사회 전체와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



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갖추고 고객, 사회공동체와 함께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제품, 서비스, 브랜드의 가치를 키울 방침이다. 특히 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의 가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고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사회와 동행하기 위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철저히 실천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 KB증권 세상의 투자를 바꾸다 새로운 기회를 열다

KB증권이 가장 잘하는 일은  
지금까지의 투자를 더 좋게, 더 편하게 바꾸는 일!  
KB증권으로 인해 세상의 투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그대로  
글로벌 원마켓

 개인 고객도 천만원부터 전문 자산 관리를  
KB able Account

 소액부터 누구나 간편하게 디지털로 자산 관리를  
Prime Club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0272(2021년1월18일) \*원금손실가능 \*투자 전 설명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기준 0.25%(매도시 0.00221% 제비용 별도)이며,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 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Prime Club] \*3개월 무료 서비스 종료 후 월 1만원 부과

 KB 증권

# “FI 부당한 요구로부터 대주주 권리 찾는 판결”

〈재무적 투자자〉

##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승소 이끈 박재우 학우 변호사

### 동반매도 청구만으로 영업·경영 핵심정보 공개 안 돼 드래그앤콜 약정, M&A 시장질서 위해 균형 유지돼야

“원심 판결이 ‘인수합병(M&A)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상고심에서의) 본질적이고 큰 틀의 주장이었다.”

박재우(사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5일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매매대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고 승리를 끌어낸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두산인프라코어는 재무적 투자자(FI)를 상대로 한 1조 원 규모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로 앞지락뒤지락하다 대법원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재판에서는 FI의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 행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산 측이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화우는 김영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던 이번 사건의 상고심부터 합류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FI에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두산인프라코어 중

국법인(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두산이 기한 내에 IPO를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FI는 IPO 실패를 이유로 지분 매각(동반매도청구권 행사)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패하면 두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최대 1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에서 FI는 IPO 실패에 따른 매각 절차 진행 중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한 책임이 있는 만큼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전제로 한 매매대금 지급의 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 드래그앤콜(Drag&call) 약정이 더는 유효한 M&A 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드래그앤콜은 소수 지분 투자자에게 동반매도청구권을, 대주주에게는 우선매수청구권 등을 부여한다”며 “소주주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주주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양자 간의 이익 균형을 꾀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애초 주주 간 협약에서 예정하고 약정했던 다른 옵션들을 다 상실하게 되므로 드래그앤콜이 불안정한 제도로 전락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이번 사건의 경우 M&A 절차가 1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봤다. 이 중 4단계인 투자소개서 작성 과정에 두산 측이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본계약 체결이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산이 약 8000억 원에 FI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두산 측이) 15단계 중 4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주주가 모든 옵션을 행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거액으로 약정된 비율에 따라 무조건 소수 지분 투자자들의 지분을 매수해 줘야 하는 결과가 돼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정에 따르면 FI에 동반매도청구권을 주는 대신 대주주인 두산인프라코어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같이 부여됐다. FI가 동반매도를 청구하면 두산 측은 요구에 응하거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FI로부터 지분을 살 수 있었다. 혹은 제3의 매수희망자를 구해 지분 동반매각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두산이 약정된 가격에 지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매수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점도 부각했다. 그는 “FI가 동반매도청구 당시 매수 희망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매수 희망자가 인수할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경영 관련 핵심 정보와 계획을 다 오픈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송형근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송형근 전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임명됐다고 24일 밝혔다.



송 이사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마산고와 연세대 토목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환경계획 석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고, 환경보건정책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정책국장 등 환경부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해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신세계그룹, 중소기업 협력사 납품대금 설 명절 앞두고 4900억 조기 지급

신세계그룹이 2021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협력사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하는 납품 대금의 규모는 1만3220개 협력사에 총 4900억 원이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2000억 수준이었던 명절 조기 지급 대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온택트로 전직원 경영전략회의 연 진옥동 신한은행장 “고객과 미래를 신뢰로 잇는 디지털 컴퍼니 돼야”

“앞으로 신한은행은 고객과 미래를 신뢰로 이어주는 디지털 컴퍼니로 변해야 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22일 열린 ‘2021년 경영전략회의’에서 “디지털을 도구로 삼아 각자 맡은 영역에서 ‘디지털 리더십(디지털 정보 이해·표현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이 디지털과 금융을 연결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진 행장은 이날 △고객 △자산 △가치평가 △기회연결 △같이 성장 등 다섯 가지 미래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통적 금융회사에서 디지털 컴퍼니로 변화를 당부했다.

그는 신년사에서 언급한 행동은 반드시

참되고 진실되게 하라는 의미의 행필성실(行必誠實)을 재차 강조했다. 진 행장은 “잘 세운 계획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동이며 그중에서도 고객중심에서 출발하는 과정의 정당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을 위한 것인가, 미래를 위한 것인가, 두 질문 모두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위한 신한은행의 기준”이라며 “성과의 과정이 정당했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통과하지 못해 중요 시장에서 제외된 점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실천하는 것은 성과보다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용인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과 전국 영업점 온택트로 연결한 2020년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대회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신한은행의 미래(전략)와 신한의 현재(성과)를 하나로 이어 미래변화비전을 전파하고 정당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자 경영전략회의와 종합업적평가대회 순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전 직원이 참여한 이 행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진행됐다. 김범근 기자 nova@

## 닉슨한테 “탄핵당할 때 기분 어땠냐”고 물은 ‘美 토크쇼 제왕’ 래리 킹, 코로나19로 별세

미국 토크쇼의 전설로 불리는 래리 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2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래리 킹의 아들 찰스 킹은 이날 오전 래리 킹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래리 킹은 CNN에서 25년 넘게 ‘래리 킹 라이브’를 진행하며 영화배우와 운동선수를 비롯한 수많은 유명인과 대선 후보들을 인터뷰했다. 그는 탄핵당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초대해 워터게이트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등을 물어볼 만큼 과감하며, 흥행을 아는 사회자이기도 했다. 이후 6000개가 넘는 에피소드를 녹화하고 2010년 은퇴했다.

래리 킹이 설립한 미디어 회사인 오라미디아는 래리 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의 세다스-시나이 의료센터에서 슬픔 속에 래리 킹을

떠보냈음을 알린다”며 “그는 63년간 라디오와 텔레비전, 디지털 미디어 전반에 걸쳐 수많은 인터뷰를 한 방송인이었다”고 추모했다. 제프 저커 CNN 사장 역시 “우리의 동료 래리 킹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의 인터뷰는 CNN을 세계 무대로 올려놓았고, 우리 그와 함께 한 25년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킹의 구체적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지난달 말부터 1주일 넘게 입원했다고 전했다.

킹은 생전 7명의 여성과 8번 결혼했고 5명의 자녀를 뒀다. 지난해 아들 앤디 킹이 심근경색으로, 딸 카이아 킹이 폐암으로 먼저 떠났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는 책을 홍보하러 나온 작가에게 ‘이 책을 왜 썼나?’라고 직접 묻는 사람이었다”며 “스스로를 지식인인 척하지 않았으며, 충동적으로 질문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인사

- ◆**김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비서실장 활해식 △심사관리관 장병원 ◇3급 승진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 남가영 △행정·안전감사국 제5과장 김만석 △지방행정감사2국 대전사무소장 김태성 △지방행정감사2국 대구사무소장 전우승 △운영지원과장 최익성
-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류인철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귀현 ◇과장급 전보 △부령정책과장 나성화 △산업일자리혁신과장 김재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명만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 권해진
- ◆**환경부** ◇국장급 전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서흥원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안세창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성호 △청년고용정책관 권창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장근섭 ◇과장급 전보 △청년고용기획과장 이지영 △부산북부지정장 정운진 ◇3급 승진 △노사협력정책과장 조오연
-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영관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및 파견 △지주회사과장 신용희 △고용노동부 파견 정보림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명순
-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인천세관 심사국장 김종덕 △서울세관 조사1국장 손문갑
- ◆**통계청** ◇일반고위직공무원 전보 △통계

- 데이터허브과장 안형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두원 △통계데이터기획과장 박상영 △물가동향과장 이정현
- ◆**농촌진흥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신규 선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박수철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강민구 ◇과장급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장 홍석영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정보건강팀장 김경관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장 문준경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부장 송연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 김광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장 김금숙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이한범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장 박남건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담당관 이상호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손영상 △운영지원과장 이근석 △연구운영과장 조영민 △연구성과관리과장 최범석 △사업기획팀장 방혜선 △재해대응과장 김경화 △식량산업기술팀장 정병우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왕희상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 정충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공식품과장 최지영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선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장 박기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류성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최준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장 김동휘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송금찬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장 김시동
- ◆**산림청**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복지국장 이상익 △산림보호국장 김용관 △동부지방산림청장 최재성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

- 관 임영석 △목재산업과장 정종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한동길
- ◆**기상청** ◇3급 전보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유상진 ◇4급 전보 △총괄예보관 김동준 △영향예보추진팀장 선지홍 △정보보호팀장 홍성대 △지진화산감시과장 이호만 △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윤기한 △부산지방기상청 관측과장 박종찬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장 송병현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장 박영연
-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조해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 송관호 △서울지방우정청장 송정수 △경인지방우정청장 신대섭 △충청지방우정청장 김중호 △전남지방우정청장 정창림 △전북지방우정청장 허원석
-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장 김민한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건설관리부장 류정수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기술관리부장 김성훈
- ◆**수출입은행** ◇상임감사 △김종철
- ◆**커리어케어** ◇부사장 △헬스케어사업본부 본부장 송현순 ◇본부부장 △글로벌사업본부 F&L팀장 전무 이은경 △헬스케어사업본부 H&I팀장 전무 황문주 ◇전무 △글로벌사업본부 C&S팀장 김도훈 △미래사업본부 C&D팀장 정명호 ◇상무 △글로벌사업본부 C&P팀 이재영 △인사이드사업본부 I&A팀 윤지우 △인사이드사업본부 D&I팀 허선중 △인사이드사업본부 C&A팀 이상봉 △헬스케어사업본부 H&I팀 김윤아 △헬스케어사업본부 H&M팀 박희윤
- ◆**광남일보** ◇부사장 승진 △기획관리실장 이승배 ◇전무 승진 △광고기획본부장 이시수

## ‘메이저리그 전설’ 홈런왕 헵크 애런, 하늘의 그라운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전설 헵크 애런이 별세했다. 향년 86세.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과거 소속팀이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헵크 애런이 별세했다고 밝혔다. 사인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메이저리그에서 23시즌을 뛴 애런은 야

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멀티플레이어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가 기록한 755개의 홈런은 베이브 루스(714)보다도 많다. 2007년 배리 본즈에게 홈런 1위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상당 기간 역대 1위 기록을 유지했다. 이후 1982년 명예의 전당에 득표율 97.8%로 입성했다.

애런은 마이너리거로 뛰는 동안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기도 했지만, 메이저리그 승격 후 모두가 인정하는 전설의 홈런왕으로 거듭났다. 고대영 기자 kodae0@

## 부음

- ▲**황학규** 씨 별세, 황진호(SK케미칼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 씨 부친상 = 24일, 경주동산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54-770-9497
- ▲**신순재** 씨 별세, 이광재(전 삼능건설 대표이사)-이영-이원 씨 모친상, 박금철(전 LH공사

- 광주전남본부장)-차민식(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씨 장모상 = 22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5일 오전 11시, 02-3410-3151
- ▲**김중수** 씨 별세, 배양자 씨 남편상, 김영숙·건홍·후홍(세계비즈니스스포츠월드 디지털콘텐츠팀 차장) 씨 부친상, 황경미 씨 시부상, 권웅진 씨 장인상 = 24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30분, 031-900-044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세계 총수들의 디지털·인재·환경 3대 변혁 전략

새해 벽두부터 세계 총수들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경영 환경 변화라는 역풍을 이겨내며 새로운 성장궤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성장력 강화는 지상과제다. 세계 총수들의 변혁 전략이 2021년의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환의 2021년을 겨냥한 세계 대표들의 포석과 행마가 주목된다.

‘플랜 B는 없다’. 세계 총수들의 신년사와 인터뷰를 보면서 든 느낌이다. 여느 해보다 웅골찬 자세다. 플랜 B는 본래의 계획과 작전(플랜 A)이 잘 작동되지 않을 경우를 위해 백업으로 미리 준비해둔 두 번째의 플랜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사회와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한 상황에서 나온 세계 총수들의 신년사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의 신년사는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을 타고 넘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구축하는 한 해를 이끌어가는 좌표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세계를 대표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신년사는 플랜 B를 염두에 두지 않은 담대한 공격경영을 다짐하고 있다.

한국기업에 대한 성장 기댓값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비해 아직 낮다.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보자. 최근 미국 상장기업의 평균 PBR은 3.0배, 영국기업과 독일기업은

1.6배인 데 비해 한국 기업은 1.0배 안팎에 불과하다.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삼성전자는 며칠 전 1.5에서 1.2로 예상치를 낮추었다. 일본기업의 1.3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세계 총수들은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환경의 3개 분야에서 변혁(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총수들은 첫 번째 변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서비스업체가 제조에 참여하는 이른바 업종과 업태를 넘어선 ‘영역파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DX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이다. 예컨대 자동차 타이어, 공작기계, 건설장비 업체들이 부품에 다양한 센서를 붙여, 여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시기에 계획적으로 부품을 교환하게 하는 작업이 DX의 대표적인 사례다. 타이어의 경우 센서가 마찰, 공기압 등을 측정하여 연비를

개선토록 하는 데까지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 구광모 LG 회장은 2021년의 최우선 중점과제로 DX를 꼽았다. 간부나 임원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업무 효율화 등에 AI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총수들은 두 번째 변혁으로서 인재 변혁을 중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강점으로 간주되어 온 근로자의 동질성을 중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다양성(다이버시티)을 중시하는 인재 전략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인재 다양성이 다른 경험과 지식 기반이 섞이면서 새로운 발상과 창조를 가져온다는 판단에서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조직의 순혈주의를 깨고 문턱 없는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정 회장은 독일 BMW 출신 인사를 부사장급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영입하고, 삼성 출신 전략기술 본부장을 사장급으로 승진시켜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대차는 이런 인재 변혁의 기반 아래 본격적인 모빌

리티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세계 총수들은 세 번째 변혁으로서 환경 경영 변혁에 나서고 있다. 탈탄소화가 세계적인 키워드로 등장한 지금 환경경영은 기업의 성장 전략에서 필수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들고 나왔다. 최 회장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 경영활동의 비재무적 요소로서의 ESG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경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새해 벽두부터 세계 총수들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경영 환경의 변화라는 역풍을 이겨내며 새로운 성장궤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성장력 강화는 지상과제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 기술 확보는 생존문제”라며 근본적인 혁신적 기술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총수들의 변혁 전략이 2021년의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환의 2021년을 겨냥한 세계 대표들의 포석과 행마가 주목된다.

대방로

이근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K방역과 경제, AI와 예방적 살처분

기 단계를 조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어려운 문제는 다른 차원, 더욱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자영업으로 생활하는데, 팬데믹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개인 빛이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 나라 빛은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니 국가 재정으로 자영업을 지원하고, 기본소득방식의 재난지원금으로 생활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적응하는 경제활동이다. 시대와 민심의 요청에 조응하지 못하는 관료의 기득권과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정치는 무능이다. 팬데믹 시대,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이다.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고, 열린 논쟁을 하고 있다. 방역 정책과 행정에서는 K방역이라는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팬데믹은 사람들의 세상에만 있지 않다. 그리고 대상화된 존재들에게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계절에 따라 해마다 겪고 있는 가축전염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HPAI)는 닭, 칠면조, 야생조류에 나타나 확산도 빠르고 치명률도 높은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이다. 2003년 겨울 처음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격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26일 정읍의 한 오리농장에서 첫 발생한 후, 1월 23일까지 전국적으로 94개 농장에서 2000만 마리의 가금을 살처분했고 25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소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는 산란계 3700마리를 기르는 산안마을이 있다. 50년 역사의 이곳은 우리나라 친환경 유통망 생산의 원조격인 동물복지형 공동체 농장이다. 한 달 전 1.8km 떨어진 인근 농장에서 HPAI가 확진되며 다음 날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를 받았다. 2019년부터 강화된 HPAI 긴급행동지침으로 감염지역 반경 3km 내의 가금류는 이틀 안에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을 하라는 행정명령이다. 산안마을농장은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에 선정되어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에 더해 사료반입과 달걀 반출 위치 추적, 외부접촉 차단 등 선진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2018년 800m

인근 감염 시에도 피해 없이 지나갔다. 매일 검사가 이루어지고, 정밀검사도 음성, 잠복기도 이미 지났고 60만 개의 달걀이 적체되었지만, 화성시와 경기도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 재검토 의사에도 농식품부는 살처분 명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은 감염농장 살처분의 5배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달걀 수급에까지 문제가 생기자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2월 국회 농수산위에서 예방적 살처분의 과도한 가축방역행정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병원체의 차단과 면역보강(백신), 환경관리(거리 두기)가 고루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육환경의 개선이나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가성비 좋은 백신은 미뤄두고 실적 위주의 살처분만으로 가축방역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목적마저 무색하게 한다. 경제와 방역의 균형논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 중심 논리이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서 살아가는 길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당하게 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의미(毅庵) 유인석(柳麟錫) 명언 “나랏일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 어느덧 늙어서 흰머리 되었네/ 뽀뽀람의 거센 힘 빌려 들어서/ 산 같은 근심을 흠어버릴까 [憂國復憂國 天涯老白頭 春風儻借力 吹散際山憂].”

조선의 학자·의방장. 갑오개혁 후 친일 내각이 들어서자 의병을 일으켰으나 관군에게 패전하고 만주로 망명했다. 국권피탈 뒤에도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연해주에서 병사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42~1915.

☆ 고사성어 / 사이후이(死而後已) ‘죽은 뒤에야 일을 그만둔다’는 뜻. 살아 있는 한 그만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에 나오는 증자(曾子)의 말. “선비는 인(仁)을 자기의 본연의 임무로 삼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일이니 머나먼 길이다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為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 시사상식 / 미포머족 Me와 informer가 합쳐진 말이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각종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사람들을 뜻한다. 미국 텃거세대가 트위터 사용자 350명을 조사해 내놓은 용어. 이용자의 80%가량이 미포머족이며 이들은 SNS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은 물론 사생활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게시물을 올리고 타인과 공유한다.

☆ 우리말 유래 / 퇴짜 놓다 조선의 나라살림을 맡은 호조(戶曹) 관리가 세금으로 바친 물품을 살펴보고 등급을 매길 때, 품질이 낮은 공물에는 퇴(退)라는 글자를 찍은 데서 ‘퇴짜를 놓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 유머 / 부부의 막장 대화 남편이 “나 죽으면 그냥 바다에 뿌려줘”라고 하자 아내가 “아이고! 죽어서도 나 힘들게 하려고? 바다까지 가려면 얼마나 먼데!”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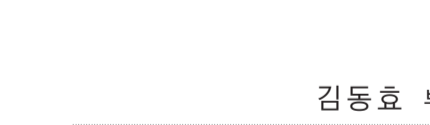
남편의 당부. “그럼 그냥 번기이라도 내려줘. 바다까지는 내가 알아서 갈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집권 4년 만에 나온 말이였다. 3년 6개월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시장 안정의 실패를 자인했다. 올 초 신년사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사과인 듯 아닌 듯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이번 실패를 직접 인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장 안정 실패의 원인을 정책이 아닌 ‘예년에 없던 1인 가구 증가’와 유동성에서 찾았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역지를 부리는 수석침류(漱石枕流)의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주목해야 할 건 대통령이 직접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

기자수첩



김동효 부동산부/sorahosi@

변죽만 울리는 ‘특단의 대책’ 되지 않길

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작심한 듯 ‘기승전 공급’ 신호를 보내는 중에 대통령까지 힘을 보탤다.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풀 꺾이는 듯하더니 지난주 무려 8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시장은

왜 정부의 시그널을 외면할까. 정책의 시행과 효과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했듯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서라도 찍어낼 수 있지만 집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변창욱 국토부장관이 당장 첫 대책을 내놓으라 그 집에 입

주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린다. 비싼 전셋값에 갈 곳 없는 무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공급 내용에 대한 기대가 없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실패를 1인 가구 증가에서 찾았다는 게 눈에 띈다. 이 같은 진단으로 새로 나올 공급대책에서 소형 주택 공급의 파이를 키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중산층 수요자들의 욕구와 달리 임대 공급에 치중할 것이라는 비판론도 적지 않다. 모든 시선이 25번째 대책에 쏠려 있다. 정부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장의 침담한 쓴소리를 삼켜야 한다. 변죽만 울리고 핵심은 없는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대표전화, 팩스,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보다 증세 논의할 때

여당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 격차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본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를 본 업종에 자발적으로 이익을 조금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정부와 여당은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업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사실상 '기업 손목 비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익공유제 개념이 모호해 주주권 침해나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반시장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책임 전가하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를 달래고자 여당이 이익공유제 카드를 제시했다는 공급이 아닌 수요 측면의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미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강제인 셈이다.

이번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 기업으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코로나19로 수해를 봤지만 과연 어느 정도 혜택을 봤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또 쿠팡

##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은 지난해 매출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55% 급증했지만, 영업이익자는 2000억 원을 기록해 이익을 나눌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은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로 약 34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조 원의 적자를 감내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한다면 주주권 침해나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쿠팡처럼 수년간 적자를 감내한 기업이 많아 사실상 이익공유제 참여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지만, 구글 등 세계적 기업과의 형평성이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업무순위 1번으로 '공공 플랫폼 기업 감질 방지'를 잡은 점도 기업엔 부담이다. 공정위는 이익공유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업이 바라보는 시선은 '압박'이라는 점이다. 금융권과 대기업들도 주주배당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익공유제 참여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여당이 실효성 없는 이익공유제를 주장하기보다 국민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

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하는 데 재원이 마련이 어려워 증세를 해야겠다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적자국채 발행이나 기금 고갈은 문제가 있다고.

4월 재·보궐선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가 여당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한 '언 발의 오줌 누기식 정책'보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백년대계를 위한 대의 정치가 아닐까. 국민이 지난해 총선에서 범여권에 180석을 준 것은 대의 정치를 해 달라는 희망에서 표심을 모은 것이다. 다음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수단으로 준 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률안이 임시방편적 민생법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급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구성해 과감한 증세 대화를 해야 한다. 증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복지 확대와도 연관이 있다. 무늬만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지 말고 이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때다.

현재의 세수 구조에 관해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조차 문제가 많다고 한다.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만만한 월급쟁이만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라 저소득층도 일부 세금을 부담해 보편적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lawsdm@

## 시설

# 손실보상법 포퓰리즘, 돈은 어디서 나오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여당은 홍 부총리에게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상반기 입법을 공언했다. 잠재적 대선주자라고 해도, 행정부 수반이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국가채무 총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중이 올해 47.3%, 내년 50%를 웃돌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당 압박에 밀려 기재부도 결국 입법을 따라가는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 걱정스럽다. 코로나 위기가 심화하면서 피해계층 지원이 시급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현실인 건 맞다. 그러나 그것도 재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에 이어 또 밀어붙이는 손실보상법은 선거를 앞두고 계속 돈을 풀겠다는 건데,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건지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손실보상 비용이 한 달에 최대 24조 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4개월만 지급해도 100조 원에 달해 우리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이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을 또 엄청나게 늘려야 한다. 결국 증세가 뒤따라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국민 반발을 의식해 증세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25%를 넘어 선진국들의 2배 수준이다. 이들을 직접 지원하려면 다른 선진국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손실보상의 법제화는 앞으로도 재난상황에서 영업을 국가가 제한할 때 피해보상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손실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지는 않는 이유다.

피해보상은 물론 필요하지만 재정의 한계 또한 뚜렷하다.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산정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지 공정한 기준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선거용 포퓰리즘 입법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재정건전성을 완전히 허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 수입은 줄고 나랏빚만 크게 늘어 재정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부터 깨달아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 노트북을 열며

설경진  
자본시장부 차장



# 20년 만에 찾아온 증시 3차 붐

폭등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며 코스닥 시가총액도 2년 만에 11배 증가했다.

주식시장 1차, 2차 붐의 공통점은 급등 직전 폭락이 있었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가 있었다.

최근 주식시장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에 지난해 3월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며 국내 주식시장도 1439.43포인트까지 폭락한 뒤 유동성 확대로 급등이 이뤄지고 있다. 1차, 2차 붐이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을 할 때 주식시장 스스로 버블을 걷어내지 않았다. 급격히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서 유동성을 줄여야 버블이 꺼졌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주식시장 과열을 아무리 경고한다 해도 금리인상 등 유동성을 줄이지 않는 이상 주가는 급격하게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주가가 너무 올랐다고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코스피 2000에서 3000포인트로 13년 만에 50% 올랐지만 이 기간 부동산이나 다른 물가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일부는 "전문가들의 '너무 올랐다', '폭락할 것이다'라는 경고가 오히려 옳으므로 더 갈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동안 제대로 예측한 경우가 없던 것을 비꼬는 것이다.

다만 3차 붐의 1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붐은 결국 버블로 이어져 많은 투자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이들은 정부나 금융당국은 공매도 등 외국인과 기관만을 위한 제도 재개를 서두를 게 아니라 이 시기 상장사들의 발 빠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돼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유동성을 줄일 때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이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코스피 지수가 MSCI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들어올 천문학적인 외국인 장기투자자금이 도로 2000 박스피(박스권+코스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붐과 버블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1차 붐으로 건설주에 몰린 자금으로 인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차 붐 때 벤처, 바이오, 닷컴에 몰린 자금은 지금의 네이버와 카카오편을 비롯해 IT강국이 될 수 있던 배경이기도 하다.

사상 첫 코스피 3000 시대를 연 지금, 향후 대한민국의 대표 업종과 기업이 태어나는 초석을 다지는 시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skj78@

##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19 덮친 지난해 GDP 성장률은

이번 주에는 월말에 몰려 있는 소비·기업심리, 산업활동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률 통계가 발표돼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로 점철된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공개된다.

한국은행은 26일(화) '2020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내놓는다. 앞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2.1%로,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4분기엔 세계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반도체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반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내수는 충격을 받았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0.4~0.8% 정도면 작년 연간 GDP 성장률이 전망치(-1.1%)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27일(수)과 28일(목) 잇따라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도 공개한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코

로나 3차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석 달 만에 하락하고 BSI도 11월보다 3포인트(p) 떨어졌다. 최근 확진자 수 감소로 소비자·기업의 체감 경기가 다소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29일(금) '2020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11월에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한 반면 소비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거리두기 강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던 만큼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수 부문 타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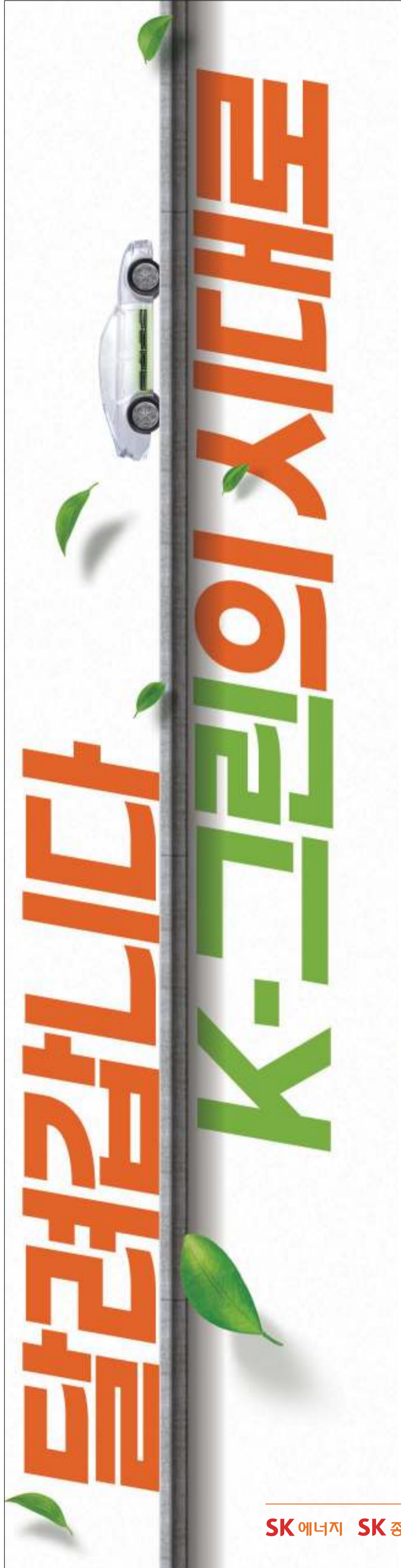
국제통화기금(IMF)은 2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IMF는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해외 이벤트로는 28일(현지시간) 나오는 미국의 4분기 GDP 속보치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집계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기 대비 연율 4.6% 증가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 Hi 2021

극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으로

# !Innovation 2021

혁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K 열풍의 주역들처럼

SK이노베이션이 **K-그린** 시대를 열겠습니다

Green Balance 로 완성하겠습니다

Hi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